## 드라마 「임계점 (Critical Point)」 제1부 대본 (가편)

### 등장인물 (1부 등장 기준)

* **백도진 (40대 중반):** 영등포서 형사2과장
* **김민준 (30대 초반):** 형사2과 피싱범죄수사팀 경위
* **박태수 (40대 중반):** 영등포서 형사1과장
* **한서우 (30대 초반):** 작가 지망생, 후에 기자
* **한정섭, 박순애 (60대):** 한서우의 부모, <엄마손 국밥> 식당 주인
* **김강호 (60대 중반):** 대통령
* **윤세은 (50대 초반):** 영부인
* **강석훈 (40대 초반):** 대통령 비서실장
* **황덕한 (50대 초반):** 법무부장관
* **최하나 (40대 중반):** 영등포서 수사2과장
* **김창석 (50대):** 영등포 경찰서장
* **독사 (30대 후반):** 백도진의 정보원
* **리화 (20대):** 조선족 여성, 최초 제보자
* **민지안 (30대):** 윤세은 수행비서
* **전상준 (40대 중반):** 독립언론 기자, 탐사보도 유튜버
* **계진우 (40대 후반):** 전직 00일보 기자, 탐사보도 유튜버, 전상준의 옛 동료
* **김경훈 (50대 후반):** 서울경찰청장
* **윤택선 (50대 후반):** 관세청장
* **김정행 (50대 초반):** 인천세관장(후에 인천공항세관장)
* **잭 (40대):** 말레이시아 마약조직 보스
* **마약조직원 여 1(소피아), 2(한나), 마약조직원 남 1(루카스), 2(앨빈), 3(하지크), 4(유스리)**
* **여준호 순경 (남)**
* **남경미 순경 (여)**
* **강력7팀 형사 1(동민석), 2(방성준), 3(신유빈), 4(기승호)**
* **형사팀 형사1(주지운), 2(차은욱), 3(장협)**
* **세관직원 1, 2, 3**

## ****제1부 대본 (오프닝 시퀀스)****

**(S.E 타이핑 소리)** **자막: 2023년 1월 2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 S#1. 허름한 호텔 방 (밤)****

습하고 더운 기운이 가득한 방. 낡은 에어컨이 힘겹게 돌아간다. 방 안에는 동남아계 **여성조직원 2 명이** 서 있다. 계절에 맞지 않는 두꺼운 겨울 외투들이 한 쪽에 쌓여 있다. 그들 앞에는 \*\*잭(40대, 말레이시아 조직 보스)\*\*이 앉아있다.

잭

(휴대폰을 들고 일어나 조직원들의 사진을 찍으며, 영어로)

Look here! Just like that! Alright!

자막: 여기 봐. 그대로 있어! 좋아!

잭이 스마트폰을 들자, 여성 조직원 1과 2는 긴장한 듯 무표정하게 카메라를 응시한다.

(S.E) 카메라 셔터소리\_찰칵. 잭이 휴대폰으로 사진을 누군가에게 전송한다.

잭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을 확인한다, 조직원들의 긴장된 표정을 보고 씩 웃으며)

No need to worry. When you arrive in Korea, they will recognize you first. You just

have to do what they tell you.

자막: 걱정할 필요 없어. 한국에 도착하면 그들이 너희를 먼저 알아볼 거야.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잭이 흰색 가루가 든 비닐 팩을 들고 잔뜩 긴장한 **여성조직원 1(소피아)**에게 다가간다.

그녀의 턱에서 땀이 뚝 떨어진다. 그 모습을 본 잭이 걱정 말라는 듯 그녀의 어깨를 짚고 눈을 맞춘다.

그의 눈빛에는 '격려와 위협'이 묘하게 교차한다. 바로 옆에서 **여성조직원 (한나)2**의 몸통을 테이프로 칭칭 감고 있다.

(카메라) 천천히 **여성조직원 2**패닝. 배에 필로폰이 담긴 비닐팩이 부착된 모습 클로즈 업.

****# S#2. 인천, 고급 일식집 룸 (같은 시각)****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관세청장 윤택선(50대)**\*\*이 \*\***인천세관장 김정행, 세관 직원들**과 함께 앉아있다.

윤택선의 스마트폰에 '새 메시지' 알림이 뜬다. 그가 폰을 열자, 방금 전 잭이 찍은 조직원들의 얼굴 사진이 보인다. 윤택선은 사진을 확인한다.

윤택선

(조용히 폰을 확인하고, 인천세관장 김정행에게 전송한다.)

윤택선의 폰 화면에 전송완료 메시지가 뜬 모습 클로즈 업. 세관 간부를 보며 턱으로 그의 휴대폰을 가리킨다. 세관 간부 메시지를 확인하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윤택선

아피스는?

김정행

조치했습니다.

윤택선,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사케 잔을 들고 세관 직원들에게 권한다.

### ****# S#3.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대****

**(타이핑 소리)** **자막: 2023년 1월 27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수많은 인파가 오가는 입국심사대.

검은색 롱패딩 차림의 **여성조직원 1, 2**가 검색대 대기열 중간에 서 있다.

여성조직원2(한나)는 여전히 긴장한 채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남성 조직원 1(루카스)와 눈이 마주친다. 한나는 루카스를 알지 못하지만 자신과 같은 일을 하는 조직원이라는 것이라 확신한다.

여성조직원 1(소피아)가 한나의 등을 툭 치며, 턱짓으로 앞을 가리킨다.

**인천세관 직원 2명**이 그들을 향해 걸어오는 모습. (얼굴은 잘 보이지 않고 유니폼만 선명히 보인다.)

한나가 마른 침을 꿀꺽 삼킨다. 세관 직원 2명이 그들 앞에 멈춰 선다. 긴장감이 감돈다.

세관 직원들은 조직원들에게 여권 제시를 요구한다. 의심스러운 눈으로 얼굴과 여권을 번갈아 본다.

\*\*카메라는 세관 직원의 시선으로 여권과 조직원 여섯 명의 얼굴을 번갈아 비춘다\*\*

세관직원1

(손으로 따라오라는 시늉을 하며 영어로 말한다.)

I need to check something for a moment, so follow me.

자막: 확인이 필요하니 잠깐 저희와 함께 가시죠.

세관 직원들이 앞서 걷고, 긴장이 역력한 마약조직원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며 마지 못해 세관 직원들을 따라 간다. 그들을 따라 걷던 여성조직원 1의 눈에 [상주직원 전용 출입문(Authorized Staff Only]이라고 쓰여 있는 간판이 들어온다. 출입통제 마크가 눈에 띄게 표시되어 있다.

카메라는 통로 입구 옆 [안내 표지판]을 비춘다. ‘일반 탑승객의 출입을 금합니다.’ 라는 문구가 선명하다.

세관 직원이 목에 걸고 있던 출입증을 센서에 대자 신호음과 함께 문이 열린다.

(S.E. 쎈서 인식음\_삐빅, 출입문이 열리는 소리) 직원 전용 통로로 걸어 들어가는 그들의 뒷모습

### ****# S#4.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전상준이 초췌한 모습으로 캐리어를 끌며 입국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입국장을 휘이 둘러본다.

카메라, 전상준의 시선으로 인천공항 입국장의 모습을 비춘다. 다양한 군상(여행객, 보안요원, 세관직원 등)을 보여준다.

(화면 전환) 전상준의 무기력한 표정 클로즈업, 출국했던 시점을 회상한다.

(플래시백) 출국장, 전상준이 계진우의 배웅을 받으며 출국장에서 대화를 나눈다.

계진우

(전상준에게 기내용 캐리어를 건네 주며)

여기 걱정은 말고 잘 다녀와. 건강 챙기고! 제발 밥 좀 굶지 마시라고요.

전상준

(기대에 찬 표정과 밝은 목소리로)

제가 밥을 왜 굶습니까? 형님이야 말로 걱정은 멍멍이한테나 주시고, 그 녹취 파일 건 팩트 체크 잘

해주세요.

(걸음을 멈추고 계진우를 보며 정색하는 표정, 장난스럽게 계진우에게 핀잔을 준다.)

근데, 뭐, 형이 우리 엄마야? 맨날 밥 걱정은?

계진우

(전상준의 장난을 받아주며)

몰랐니? 반가워, 새 엄마야.

두 사람 실없이 함께 웃는다. 손인사를 주고받으며 전상준은 출국 게이트를 향해 걸어간다. 계진우 웃으며 손을 흔들다가 전상준이 멀어지자 표정이 확 싸늘해진다.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건다.

계진우

(전상준과 장난치던 조금 전과 전혀 다른 분위기로)

준비하자!

**타이틀 <임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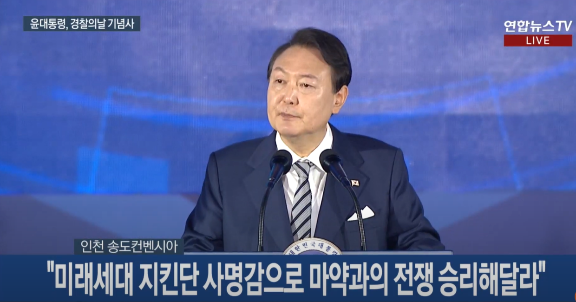
## ****제1부 대본 (타이틀 시퀀스)****

****# S#5. 타이틀 시퀀스 - 몽타주 (여러 장소, 낮/밤)****

빠르고 긴장감 넘치는 음악과 함께, 아래의 장면들이 교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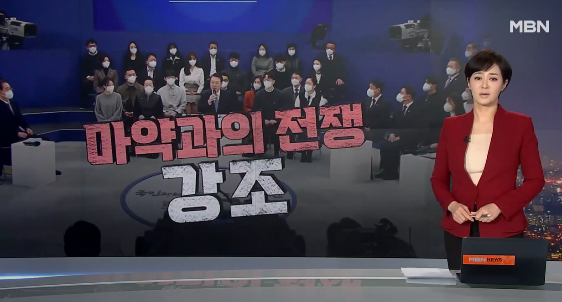
**@2022년 10월 21일, 경찰의 날 기념식장.** 수많은 경찰 고위직들 앞에서, 대통령 **김강호**가 연설대 위에서 주먹을 쥐고 외친다.

김강호 **(V.O.)** 우리 미래 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주십시오.



@뉴스 캡쳐 이미지. 법무부 장관 **황덕한,** "마약, 전쟁하듯 막으면 막을 수 있어…강력 엄단"

2022년 12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



@**신문 기사 헤드라인 클로즈업.**

**2023년 2월 21일,** "마약청정국 지위 되찾겠다" 4대 권역서 범정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출범



몽타주의 마지막, 화면은 어지러운 뉴스 화면들 위로 떠오르다, 비 내리는 서울의 야경을 비춘다.

**(FADE OUT)**

## 제1부 대본 (발단 시퀀스)

**(S#5 타이틀 시퀀스가 끝난 후 화면 암전)**

****# S#6.**** 112 치안종합상황실 (저녁)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다. 서울의 밤이 CCTV 화면 속에서 조용히 흐른다. 헤드셋을 쓴 경찰관들이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신고 전화를 받고 있다. 통제된 긴장감이 흐르는 공간.

여경(남경미)

(침착한 목소리)

네, 112입니다. 말씀하세요.

그녀의 목소리 위로, 전화기 너머 다급하고 떨리는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신고자 (V.O.)

저, 저기요!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요, 옷을 다 벗고... 막 소리 지르면서...!

여경

(침착하게 키보드를 두드리며)

네, 나체의 남성이 난동을 부린다는 말씀이시죠? 위치가 어디죠?

신고자 (V.O.)

영, 영, 영등포... 영등포 사거리요! 빨리 좀 와주세요!

여경

(침착하게 키보드를 두드리며)

영등포구청 사거리인가요? 지금 보이는 큰 건물이나 간판 있어요?

신고자 (V.O.)

네네, 맞은편에 에이원타워 보여요. 빨리 좀 와주세요!

여경

(침착하게 키보드를 두드리며)

그 나체의 남성이 흉기를 들고 있나요? 칼이나...

신고자 (V.O.)

아뇨, 칼은 없어요. 근데 사람들한테 뭘 막 던져요. 아~~

(비명을 지른다)

여경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인다. 그녀는 화면에 사건 내용을 입력하면서, 즉시 무전 마이크를 잡는다.

여경

(무전기에)

영등포 관내, 코드 제로. 영등포 사거리 에이원타워(A1타워) 맞은편. 남성, 나체로 행인 위협 중.

인근 순찰차 및 지구대 즉시 출동 바람.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가 어지러운 도시의 밤 속으로 울려 퍼진다.

(화면 암전 CUT TO:)

### ****# S#7.**** 영등포 사거리 (같은 시각, 저녁)

[카메라는 '나체 남성'의 시점. 거칠고, 흔들리며, 초점이 맞지 않는다.]

[S.E. 남성의 거친 숨소리, 심장 박동 소리]

퇴근인파로 붐비는 대로 옆 인도, 세상이 뭉개지고 일그러져 보인다.

화려한 간판들이 길게 꼬리를 물며 눈앞에서 폭발한다.

자동차들의 경적 소리, 사람들의 비명소리는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웅웅거리며 멀게만 느껴진다. 들리는 것은 오직 자신의 거친 숨소리와 심장 소리뿐이다.

시선이 향하는 곳.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일상적인 표정에서 순식간에 경악과 혐오, 그리고 공포로 바뀐다. 그들의 입이 벌어지고, 나를 향해 손가락질한다.

\*팔짱을 끼고 걷던 젊은 연인. 여자가 비명을 지르며 남자의 등 뒤로 숨는다.

\*통화를 하던 샐러리맨. 휴대폰을 든 채 멈춰 서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본다.

\*나를 보고 깔깔대며 웃는 취객 무리.

모든 것이 느리게, 그리고 기괴하게 보인다.

나는 그들을 향해 달려간다. 이유도, 목적도 없다.

그저,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는 분노를 막을 수 없다.

(카메라/난동남의 시선) 한 명의 행인을 정면으로 마주 본다. 그의 얼굴이 공포로 극대화되는 순간,

(화면 암전)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터져 나온다.

(FADE OUT)

****# S#8. 영등포 사거리, 식당 앞 (같은 시각)****

삼겹살 식당 앞. **백도진**과 **박태수**가 막 식사를 마치고 나온다.

백도진은 만족스러운 듯 이쑤시개를 물고, 배를 문지르며 요란하게 트림한다.

박태수는 그런 백도진의 모습에 질색하며 잔소리를 한다.

두 사람의 모습은 영락없는 오래된 부부 같다.

백도진

(배를 문지르며)

꺼억~

**박태수**

(백도진의 트림 소리에 질색하며)

아! 진짜! 쫌!

백도진

(능글맞은 표정과 목소리로)

알았어! 알았다니…꺼억~

(한번 더 요란하게 트림하고 걸어간다.)

**박태수**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앞서 걸어가는 백도진의 뒤통수에 대고)

야! 너 진짜 왜 그러냐~~ 하지 말라면 하지 마, 쫌!

백도진

(뒤돌아 박태수를 보고 달래듯 손짓하며)

알았다구! 빨리 가자~ 처리할 보고서가 산더미야.

(다시 걸어가던 방향으로 돌아 귀를 막으며, 혼잣말처럼)

으~ 저 놈의 잔소리! 혹시 저거 전생에 내 마누라였나? ... 아니 왜 이런 끔찍한 상상을?

**박태수**

(빠른 걸음으로 백도진을 쫓아와 째려보며)

진상~ 진상~! 무슨 보고서? 도와줘?

백도진

(바보 같이 웃으며 고개를 빠르게 끄덕인다.)

어, 어!

바로 그 순간. 진행방향 앞 쪽에서 여자의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들려온다.

여자 (V.O.)

꺄악! 어머 뭐야?

두 사람의 표정이 동시에 굳는다. 그들의 시선이 소리가 난 곳으로 향한다. 영등포 사거리 대로변 인도.

두 사람은 인파를 헤치며 소리가 난 곳을 향해 전력질주한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나체의 남자(30대)\*\*가 고함을 지르며 행인들을 위협하고 있다. 그의 눈은 초점이 없고, 그의 입은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린다. 시민들은 기겁하며 그를 피하고, 도로는 순간 아수라장이 된다.

박태수

(눈을 찡그려 유심히 보며)

...설마 홀딱 벗은... 거야?

백도진, 말이 없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바뀌어 있다. 그는 박태수를 보지도 않고 말한다.

백도진

넌 왼쪽. 난 오른쪽.

박태수

(백도진의 어깨를 짚으며)

...네가 왼쪽, 내가 오른쪽.

두 사람, 그 어떤 대화나 사인도 없이, 동시에 반대 방향으로 흩어져 뛴다.

(카메라) 두 사람의 움직임을 따라간다.

박태수는 무전기로 상황실에 보고하며, 시민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킨다. 그의 움직임은 침착하고 노련하다.

반대편, 백도진은 나체남의 동선을 예측하며 조용히 포위망을 좁혀간다.

나체남,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백도진을 발견하고는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지르며 달려든다.

백도진, 정면으로 맞서는 대신, 살짝 몸을 틀어 그의 팔을 잡아채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다.

'쿵!' 육중한 소리와 함께 나체남이 쓰러진다.

하지만 약에 취한 그는 고통도 느끼지 못하는 듯 다시 일어나려 발버둥 친다.

백도진, 그의 몸 위로 올라타 제압하려 하지만, 예전 같지 않은 체력에 숨이 턱까지 차오른다.

백도진

(숨을 헐떡이며)

뭐야? ... 헐크야?

그때, 반대편에서 달려온 박태수가 합세한다. 두 사람은 능숙하게, 하지만 예전보다 확실히 힘겹게, 발버둥 치는 남자의 양팔을 꺾어 수갑을 채우는 데 성공한다.

박태수

(역시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절레절레)

...고기를 먹이면 뭐하나? 쯧쯧쯧.

백도진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고르며)

...사돈이 남의 말을 너~무 정성 들여 하신다.

박태수

(가소롭다는 듯)

딸도 없으면서 사돈은 무슨...

(피의자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다.)

선생님! 선생님 제 말 들리시죠? 현 시각으로 나체 난동 및 행인을 위협한 혐의로 체포되신 겁니다.

선생님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고, 지금부터 선생님이 하는 말은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와 변명의 기회가 있고, 체포구속적부심을 법원에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셨죠? 기억 안 난다고 하면 안돼요!

두 사람, 서로를 보며 피식 웃는다. 그때, 순찰차의 싸이렌이 들린다.

두 사람이 동시에 알몸으로 씩씩대며 버둥거리는 범인을 보며 못 볼 꼴을 본 기분 더티한 표정을 짓는다.

그들의 얼굴에는 베테랑의 여유와, 숨길 수 없는 세월의 고단함이 함께 묻어난다.

(FADE OUT)

****# S#9. 영등포경찰서, 조사실 및 모니터 룸 (밤)****

(A. 조사실)

어수선한 조사실.

**\*\*최성욱(30대 후반, 나체 난동 피의자)\*\***이 임시로 걸친 경찰용 판초 우의 아래로 맨다리가 보인다.

그는 조사를 받는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어딘가 여유롭고 재미있다는 듯한 표정이다.

그의 앞에는 젊은 \*\***주지운(형사1팀 경장, 30대)\*\*** 형사가 앉아 조서를 작성하려 애쓰고 있다.

주지운

이름, 말씀하세요!

최성욱

(피식 웃으며)

이! 름!

(배를 잡고 낄낄거린다)

주지운

(한숨을 참으며)

장난하지 마시고, 집이 어디예요?

최성욱

집? 어디드라? 몰라. 기억 안 나.

(배를 잡고 낄낄거린다)

최성욱, 모르쇠로 일관하며 주지운 형사의 속을 긁는다.

(B. 모니터 룸)

조사실의 모습을 비추는 모니터 앞.

박태수가 종이컵에 담긴 믹스커피를 마시며, 피곤한 눈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

(다시, 조사실)

주지운

(음주 측정기를 내밀며)

술 얼마나 드셨어요? 일단 음주 측정부터 하겠습니다.

주지운 형사가 음주 측정기를 꺼내 들자, 최성욱의 얼굴에 가소롭다는 듯한 미소가 번진다.

최성욱

(술에 취한 듯, 혀가 꼬인 목소리로)

내가... 술을 왜 마셔? 술... 그거 맛없어. 나는 고기 좋아해. 고기.

(재미있어 죽겠다는 듯 박장대소한다.)

주지운

(화를 겨우 참으며 음주 측정기를 내민다)

후~ 부세요. 길게! 후~

최성욱

(갑자기 고개를 들며, 주지운 형사를 빤히 본다)

그리고... 넌 날 못 건드려. 절대.

주지운

(포기했다는 듯 음주 측정기를 가까이 갖다 대며)

네네~ 안 건드릴 테니까 후~ 부세요. 후~!

그의 눈빛과 행동은 술에 취한 사람의 것이 아니다. 주지운 형사가 측정기를 그의 입에 가져가자, ‘후~’ 소리를 내며 불고 고개를 파묻으며 낄낄거린다. 그러가 갑자기 몸을 비틀며 난동을 피우기 시작한다.

최성욱

(눈빛의 초점이 약간 돌아온 듯 주지운 형사를 보며 덜덜 떤다)

아, 추워! 나 춥다고! 나 배고파! 밥 줘! 밥 달라고!

그는 의자에서 거의 굴러 떨어질 듯이 몸부림치며, 아이처럼 떼를 쓴다.

(다시, 모니터 룸) 박태수, 인상을 찌푸리며 모니터 화면에 더 가까이 다가간다. 그의 눈에, 최성욱의 광기 어린 행동이 기괴하기 짝이 없어 보인다. 박태수의 얼굴에, '귀찮은 주취자'를 보던 피로감이 사라지고, '의심 많은 형사'의 날카로운 눈빛이 떠오른다. (FADE OUT)

****# S#10. 영등포경찰서, 형사1과 사무실 (새벽)****

어수선하지만, 각자의 일에 몰두해 있는 형사1과 사무실.

**박태수** 과장이 '나체 난동남' 사건의 피의자 **최성욱**의 인적사항을 보며 미간을 찌푸리고 있다. 그때, 한 \*\***차은욱 형사(형사1팀 경장, 30대)\*\***가 다가온다.

차은욱

(박태수의 표정을 보고는 눈치 보며)

...저... 과장님... 최성욱 아내분이 오셨습니다.

박태수

(의아한 듯)

아내분이? 벌써?

차은욱

(주저주저하며)

...저... 그런데... 과장님도...아시는 분....

박태수

(살짝 놀라며)

내가? 아님 나를?

차은욱

(안내하듯 손을 갈 방향으로 뻗으며)

가보면 아십니다.

박태수

(의심스러운 듯)

가보면 안다... 그래 가보자.

박태수, 자리에서 일어나 차은욱과 함께 조사실로 향한다. 그의 얼굴에 '누구지?' 하는 호기심이 스친다.

박태수가 나가자 얼굴을 파일로 덮고 의자에 앉은 채 잠자던 백도진이 벌떡 일어나 박태수의 자리로 성큼성큼 다가간다. 박태수의 모니터를 주의 깊게 들여다본다.

백도진

누구지? 태수가 아는 여자면 내가 모를 리가 없는데...

잘 모르겠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고는 다시 앉아 있던 자리로 돌아가 움직이기 전 자세를 잡는다.

**(화면 전환)**

****# S#11.**** 영등포경찰서, 조사실 (새벽)

조사실 안. 단정하고 지적인 이미지의 **\*\*차수정(30대 후반)\*\***이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앉아있다.

문이 열리고, 박태수가 들어온다. 그는 서류를 보며 걷다가, 조사실에 앉아있는 여자의 얼굴을 확인하고 순간 멈칫한다. TV에서만 보던 유명 아나운서 차수정이다.

(장면 삽입 - TV 뉴스 화면)

화면 속, 차수정이 단아한 모습으로 뉴스를 진행하고 있다.

[앵커 차수정] 다음 소식입니다...

(다시 조사실)

박태수, 놀란 기색을 애써 감추며 그녀의 맞은편에 앉는다.

박태수

(조서를 훑어보며)

형사1과 박태수 과장입니다. 피의자 최성욱씨 아내분... 되시죠? 차수정씨?

차수정

(담담하게)

네, 맞습니다.

박태수

(애써 태연한 듯)

남편분께서 어젯밤에... 나체로...

(목소리를 가다듬으려 헛기침을 한다.)

으흠! ...행인들을 위협하면서 소란을 피우셨구요. 그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분께서는 현재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남편 분은 현장에서 주취 상태로

체포돼서, 경찰서로 연행되었는데요, 많이 취하셔서 조사가 불가능한 상태라 일단 안정을 취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보호자 분께서는...

차수정

(말을 자르며)

술에 취한 게 아닐 겁니다, 형사님.

박태수, 의외라는 듯 차수정을 본다. 차수정은 말없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박태수 앞으로 내민다.

차수정

(스마트폰 영상 플레이 버튼을 누르며)

...이걸 봐주세요. 얼마 전에, 집에서 제가 몰래 찍어둔 영상입니다.

**[화면 클로즈업]**

영상 속, 최성욱이 눈이 완전히 풀린 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며 기괴한 춤을 춘다.

그러다 갑자기 선 채로 몸을 90도로 숙여, 좀비처럼 흐느적댄다.

영상을 본 박태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진다.

박태수

(놀라서 화면과 차수정을 번갈아 보며)

이, 이, 이런 일이... 자주 있었습니까?

차수정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최근 들어 부쩍 잦아졌어요. 저도 처음엔 술주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술 냄새가 전혀 안 나더라고요.

미국에서 같이 학교 다녔다는 친구들이 최근 한국에 들어왔는데...

아마, 그 친구들이 마약을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감정이 격해져 살짝 떨리는 목소리와 경멸하는 눈빛, 그러나 정확한 발음으로 말한다.)

유-유-상-종!? 다 같은 족속인 거죠. 돈 많은 부모를 둔 쓰레기? 라고 하면 이해가 빠르실까요?

박태수

(스마트폰을 차수정에게 돌려주며 진지한 표정으로)

...마약을 투약하는 현장을 직접 목격하신 적은 없구요?

차수정

(침착함을 되찾고 테이블 위의 사진을 콕콕 짚으며)

사진에 있는 친구들 만난다고 나가서는 2-3일씩 집에 안 들어와요. 그러다 집에 들어오면 늘...

(스마트폰을 들어 화면을 보여주며)

이런 상태인 거죠. 나가서 약을 하고 약기운이 남은 채로 귀가하니까, 저는 마약 현장이 아니라

마약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목격한 거죠! 그 증거로 이 영상을 찍은 겁니다.

박태수

(차수정이 침착하게 설명하는 모습에 감탄하며 듣다가 정신을 차리고)

...아, 네... 그럼 그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시겠다는 겁니까? 남편분이 마약 사범으로 입건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건 아시죠?

차수정, 박태수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한다.

그녀의 눈빛에 의심이 살짝 스친다.

차수정

(의미심장하게 옅은 웃음을 픽!)

제가 이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면... 이 사람, 마약사범으로 구속시킬 자신... 있으세요?

차수정의 마지막 질문이, 조사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든다.

박태수는 그녀의 당돌함과, 그 말속에 숨겨진 또 다른 의미를 생각하느라 말문이 막힌다.

****# S#12.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실 (낮)****

사무실은 각종 강력사건 서류들로 어수선하지만, 나름의 질서가 있다. 백도진, 샌드위치를 들어 한 입 베어 물려는 순간, 노크도 없이 문이 벌컥 열리는 바람에 놀라서 샌드위치를 떨어뜨린다.

백도진

(놀라서 떨어뜨린 샌드위치를 집어 올리며, 짜증스럽게)

아, 씨! 노크!!

박태수

(지친 듯 예민하게)

내가 네 방에 들어오는데 노크를 해야 돼? 언제부터?

물티슈로 손을 닦고 고개를 든 백도진의 눈에, 심각한 표정의 **박태수**가 보인다.

박태수는 손에 서류철 하나를 들고 있다.

백도진

(박태수의 기분을 살피며)

...그 표정은 또 뭔데?

박태수

(서류철을 백도진의 책상 위에 툭 던진다.)

어제 그 홀딱남이 차수정 남편이시랜다.

백도진

(분해된 샌드위치를 주섬주섬 정리하다 놀라서 멈추고)

뭐? 아나운서 차수정? 와... 겨우 그런 놈한테 내가 이상형을 뺏긴 거냐? 아오~ 열 받네...

(의자에 기대며 눈을 감았다가 확 뜨면서 몸을 일으킨다.)

근데 참, 피의자 와이프, 네가 아는 사람이라며? 네가 차수정을 어떻게 알아?

박태수

(한심하다는 듯)

너님은 차수정을 모르세요? 매일 TV뉴스에 나오시는데~~~

백도진

(고개를 갸웃하고 이내 끄덕이며)

아... 그렇게 아는 거! 난 또? 개인적으로 안다는 줄~

박태수, 백도진의 맞은편 의자에 앉는다.

그의 얼굴에 착잡함이 서려 있다.

백도진

부잣집에 시집갔다 그러지 않았나?

박태수

재벌까지는 아니구, 뭐 돈 좀 있는 집이라고 했었지, 아마...?

(본론이 생각난 듯)

아니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 얘기를 들어보라구, 쫌!

백도진

(알았으니 얘기하라는 듯 눈짓, 손짓을 한다)

박태수

네가 빼앗긴 이상형, 그 차수정이, 자기 남편이 마약 하는 것 같다고 직접 찍은 영상을 내미는데

내가 놀래냐? 안 놀래냐?

백도진

놀래지... 넌 새가슴이니까!

박태수

(고개를 끄덕이다가 장난치는 백도진을 한 대 치려는 제스처를 하고)

아유~ 쫌!

(열 받아서 자신의 손바닥을 두드리며 높아진 목소리로)

남편 친구들이 미국에서 마약을 가져온 거 같다 그러면서 사진도 보여줬는데...

(갑자기 자세를 낮추고 속삭이듯)

이름만 대면 다~ 알 만한 집 자식들이드라구!

백도진

(건조하게)

그래? 근데 차수정이 그 영상이랑 사진... 보여주기만 했어?

박태수

(고민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가로 저으며)

아니~

(갑자기 백도진의 책상을 탕! 치며)

남편이 마약사범으로 입건될 수도 있다고 내가 말해줬거든? 근데...

(차수정의 표정과 목소리를 흉내 내며)

“제가 이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면... 제 남편, 마약사범으로 구속시킬 자신... 있으세요?”

(호들갑을 떨며)

이러면서... 증거로 제출하고 갔다니까?

백도진

(뭐가 문제냐는 듯)

잘 됐네~ 증거도 있겠다! 마약사범으로 넘기면 되지, 뭐가 문제야? 안 그래도 서장님 마약실적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얼굴이 파래졌다 노래졌다 하는데~ 몇 명이야? 싹 다 잡아들여.

박태수

...나, 참... 너는 수사할 때 빼고는 뇌를 집에 두고 댕기냐?

박태수, 잠시 망설이다가, 목소리를 낮춘다.

박태수

(차수정의 표정과 목소리를 흉내 내며)

"제 남편, 마약사범으로 구속시킬 자신 있으세요?"

(가소롭다는 듯 손 날로 칠 듯 위협하는 제스처)

이게 무슨 뜻이겠냐구?

백도진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변한다. 그는 말없이 박태수를 본다.

박태수는 어린 아이에게 주의 주듯이 검지를 들어 흔들며, 고개를 젓는다.

박태수

...어허! 백도진이! 그 눈깔은 안 돼요~

백도진, 더 이상 묻지 않고 서류철을 자신의 앞으로 끌어당긴다. 그는 말없이 서류를 넘기기 시작한다.

두 친구 사이,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박태수는 한 손은 허리에, 다른 손은 이마에 올리며 한 숨을 쉰다.

(FADE OUT)

# S#13. 전상준의 지하 사무실 (밤)

어둠이 내린 구로동의 낡은 상가 건물.

[진실의 눈]이라는 상호가 적힌 썬팅지가 너덜너덜하게 찢겨진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면, 계단 아래로 어둡고 축축한 지하 공간이 나온다.

사무실 내부는 처참하다. 한때는 동료들과의 열정으로 가득 찼을 공간은, 이제 쓰레기봉투와 텅 빈 술병, 그리고 먹다 남은 컵라면 용기들로 가득하다. 벽에 붙어있던 탐사보도 계획들은 반쯤 찢겨져 있고, 책상 위에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이라고 적힌 고소장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있다.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전상준(50대)\*\*이 낡은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고 있다. 깊은 절망과 수면 부족, 그리고 분노가 그의 얼굴을 조각했다. 그는 마치 폐허가 된 왕국의 마지막 왕처럼 보인다.

선반에는 '불면증', '공황장애' 등을 암시하는 약 봉투들이 보인다.

깊은 절망과 피로가 그의 얼굴을 뒤덮고 있다. 그가 가늘게 신음하는 순간,

(플래시백 - FLASHBACK)

1년 전, '진실의 눈' 이사회 회의실.

과거의 사무실은 밝고 활기찼다. 깔끔하게 정돈된 회의실 테이블.

전상준의 자리에는 그의 이름이 적힌 명패만 덩그러니 놓여있다.

상석에는, 그의 동료였던 \*\*계진우(40대)\*\*가 앉아 비정상적인 긴급 이사회를 주재하고 있다.

그의 표정은 단호하고, 다른 이사들은 침묵하거나 동조하고 있다.

계진우

(서류를 읽으며, 위선적인 목소리로)

...따라서, 현재 미국 출장 중인 전상준 대표이사를 회사 자금 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긴급

해임하고, 본 이사회를 통해 제가 그 직무를 대행할 것을 결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사들이 마지못해, 혹은 계획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인다. 계진우의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번진다.

(다시 현재 - BACK TO PRESENT)

전상준, 괴로운 듯 눈을 뜬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린다. 그는 책상 위의 약병으로 손을 뻗다가, 이내 주먹을 꽉 쥔다. 그의 눈에, 무너진 자의 분노와 살아야 할 이유를 잃어버린 자의 공허함이 뒤섞여 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물건(번개탄과 소주) 쪽으로 시선을 돌린다.

그의 내적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는 순간.

(FADE OUT)

# S#14. 영등포 경찰서 앞 거리 (낮)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른다. 숨 막히는 열기.

경찰서 정문을 나오는 백도진과 박태수, 백도진 인상을 찌푸리며 넥타이를 거칠게 비틀어 푼다.

뒤따라 달려와 백도진과 박태수 사이로 끼어들며 함께 걷는 **김민준(30대 초반/지능범죄수사팀 경위)**

김민준

(두 사람 사이로 끼어들며)

어디로 가십니까?

백도진

(턱짓으로 길 건너편을 가리키며)

김민준

(백도진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고 체념한 듯 작은 한 숨을 내쉰다)

네… 또 국밥...

백도진이 그런 김민준을 쳐다본다. 백도진의 시선을 느낀 김민준은 얼른 태도를 바꾼다.

김민준

(손가락 하트와 힘찬 목소리로)

은 사랑이죠! 얼른 갈까요? 헤헤!

김민준, 백도진과 박태수의 등을 밀며 걷는다.

백도진과 박태수, 김민준에게 떠밀려 가듯 걷는다.

뜨거운 열기를 내뿜는 아스팔트를 따라 길 건너 편 골목으로 걸어가는 세 사람의 뒷모습.

# S#15. <엄마손 국밥> 식당 내부 (낮)

점심시간이 막 지난 시간. **백도진, 박태수, 김민준**이 구석 테이블에 앉아 국밥을 먹고 있다. 가게 한쪽에 걸린 TV에서는 YBC 뉴스가 나오고 있다.

한정섭

(물병을 가져다주며, 퉁명스럽게)

어디 상가집에서 밤들 새고 왔어? 몰골들이 아주 그냥, 쯧쯧쯧.

박태수

(물을 따르며)

사장님 말씀은 언제 들어도... 참~ 재미는 없어요.

(백도진과 김민준을 번갈아 보며)

그치? 하하하

한정섭

재미없대매? 웃긴 왜 웃어? 쯧쯧쯧.

박태수의 말에, 백도진이 씩 웃는다. 그때, TV 뉴스 화면이 바뀐다. 리투아니아의 화려한 거리를 배경으로, 차수정 아나운서의 얼굴이 화면에 잡힌다.

차수정 (TV-SOUND)

다음 소식입니다. 김강호 대통령의 리투아니아 순방 중, 윤세은 여사가 현지 명품 편집샵을 방문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박태수, 뉴스를 진행하는 차수정의 얼굴을 보고 백도진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TV를 보라고 눈짓한다.

백도진, 귀찮다는 듯 고개를 들어 TV를 본다.

화면에는 뉴스를 진행하는 차수정의 모습과 앵커 옆 자료화면에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상점으로 들어가는 윤세은의 모습이 나온다.

김민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TV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화면을 유심히 들여다본다.

카메라, 김민준의 시선을 따라 TV 화면으로 줌인한다.

윤세은의 바로 뒤, 반 발짝 거리에서 그녀를 수행하고 있는 비서, 민지안의 얼굴이 스쳐 지나간다.

백도진

(차수정을 보며 건조하게)

프로네...

박태수

(김민준을 와~ 놀래키며)

민준이 너도 이상형이 차수정이야? 누구처럼?

김민준

(상기된 얼굴로 손사래 치며)

네? 아, 아, 아니요. 아는 사람인 거 같아서요~

박태수

(기가 막히다는 듯)

누구? 차수정?

(플래시백 - FLASHBACK)

몇 년 전, 대학 캠퍼스.

눈부신 햇살 아래, 잔디밭에 앉아 이어폰을 나눠 끼고 웃고 있는 풋풋한 모습의 김민준과 민지안. 민지안이 “아이구~ 귀여워~”하며 장난스럽게 김민준의 볼을 꼬집고, 김민준은 민지안의 옆구리 살을 꼬집는다. 도망치는 김민준을 뒤쫓는 민지안의 행복한 연애시절. 민지안의 활짝 웃는 얼굴을 클로즈업한 후 뉴스 화면 속 민지안의 무표정한 얼굴과 오버랩 된다.

(다시 현재)

화면 속 무표정한 민지안의 얼굴에서 김민준의 얼굴로 전환,

카메라, 줌 아웃하면서 식사하는 세 사람의 모습을 비춘다.

국밥을 한 술 떠서 들고 입에 가져가지 못한 채, TV쪽으로 자꾸 고개를 돌리며, 연신 고개를 갸우뚱거린다. 백도진과 박태수는 국밥을 허겁지겁 먹는다.

다시 줌 아웃하면서 식당 내부 전체를 비추면서,

(FADE OUT)

## ****제1부 대본 (전개 시퀀스)****

# S#16. 영등포경찰서, 복도 (낮)

백도진, 박태수, 두 사람은 서장실을 향해 복도를 걷는다.

박태수

(서류 파일으로 손바닥을 탁탁치며)

최성욱이 말이야. 처음이 아니던데? 전에도 차수정이 가정폭력으로 신고한 기록이 있어서 보니까,

그때도 마약 투약이 의심된다는 내용이 있더라고!

백도진

(고개를 끄덕이며)

구속시킬 자신 있냐 그랬다며? 우리를 시험하자는 건지... 아님 뒷배가 있다는 건지...

박태수

(백도진의 앞을 가로막으며)

서장님한테 어디까지 보고 해야 돼? 차수정 얘기, 해? 말어?

백도진

(박태수를 슬쩍 밀치며)

뭘 말어? 김밥 말어? 다 해, 그냥.

박태수

(앞서가는 백도진의 뒤에서 어이없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손으로 눈을 가렸다 떼며)

췌! 하~나! 넌 내 개그를 평가할 자격이 없어!

(유아인 성대모사)

어이가 없네~

백도진, 박태수가 파르르 하는 모습이 재미있다는 듯 웃으며 오라는 손짓을 한다.

박태수, 어린 아이가 투정하듯 발을 구르고, 몸을 좌우로 흔들며 박태수 쪽으로 간다.

박태수

(연신 한숨을 쉬며 백도진의 손에 이끌려 고개를 떨군 채 억지로 걷는다)

하~~ 아~~

백도진

(체념한 듯 보고서 파일을 흔들며)

알았어, 알았어~ 너는 이 건에서 빼 줄게. 됐지? 대신... 네가 서장님한테서 형사팀, 강력팀

공조하라는 말만 끌어내.

박태수

(백도진의 말을 듣고, 두 손으로 입을 가리며 비명 지르는 시늉을 하고는,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고개를 빠르게 연신 끄덕인다)

두 사람, 서장실 문 앞에 다다르고, 안에서 희미하게 고함 소리가 새어 나온다.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보며 멈칫하고는 동시에 문에 귀를 갖다 댄다.

# S#17. 영등포경찰서장실 (낮)

\*\*김창석(영등포경찰서장, 50대)\*\*이 격앙된 목소리로 전화 통화 중이다. 전화기를 두 손으로 잡고 서서 연신 굽신굽신 한다.

김창석

(전화에 대고 거의 애원하듯이)

...네, 청장님. 저희 영등포서도 밤낮없이 뛰고 있습...예? 아~ 예... 그렇죠!

(점점 비굴해지는 목소리)

...예, 압니다. '마약과의 전쟁'이죠... 예... 예, 청장님! 전쟁터, 맞습니다! 예~ 예~ 그래야죠~

(신병이 대답하듯이)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청장님!

자신도 모르게 인사를 꾸벅하고는 수화기를 들고 상대가 전화를 끊는지 귀를 기울인다.

김창석

(전화기가 부서질 듯 세게 내려놓고, 자리에 풀썩 앉으며 스스로에게)

아휴~ 젠장! 전화에 대고 인사를 왜 해? 인사를~

(창 쪽으로 의자를 돌려 이글거리는 태양과, 열기가 느껴지는 아지랑이를 보며)

날...씨봐라! 더위도 지랄 맞고, 청장도 지랄 맞고! 지랄이 아주 풍년이네, 풍년이야.

# S#18. 영등포경찰서장실 앞(낮)

문에 귀를 갖다 대고 있는 백도진과 박태수, 전화기 쾅 내려놓는 소리와 김창석 서장의 욕설인 듯한 중얼거림이 들린다.

백도진과 박태수, 눈을 마주치고, 서로 노크를 미루는 듯한 제스처를 주고받으며 티격태격하다가 가위바위보를 한다. 박태수는 승자의 제스처를, 백도진은 억울한 표정으로 노크한다.

김창석 V.O.

(신경질적으로 고함친다)

들어와~

백도진과 박태수, 심호흡을 하고 조심히 문을 열어 서장실 안으로 들어간다.

(FADE OUT)

# S#19. 영등포경찰서, 서장실(낮)

\*\*김창석 서장(50대)\*\*이 잔뜩 구겨진 얼굴로 책상 위 [마약사범 검거 실적] 서류를 노려보고 있다. 백도진과 박태수가 문을 열고 들어선다.

김창석

(서류에서 눈도 떼지 않고, 짜증스럽게)

왜? 또, 뭐? 무슨 사고를 쳤길래 그래?

박태수

(넉살 좋게 과장되게 웃으며)

사고는 저~ 백과장 전문이긴 하죠, ㅎㅎㅎ! 서장님 이것 좀 보십시오.

(두 사람이 영등포사거리 나체 난동남을 검거하는 사진이 실린 기사를 테블릿으로 보여준다)

어젯밤에 영등포구청사거리에서 시민들을 위협하던 나체의 남성을 저희 둘이 단숨에 제압해

체포했습니다. 저희가 112 접수 받고 출동한 순찰대보다 훨씬 먼저 현장에 도착했구요. 그 덕분에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여기 기사에 영등포경찰서가 대문짝만 하게 똭! 나온 거 보이시죠?

헤~ 그리구 기사에 달린 댓글들이 아주 그냥... 난리난리...

(서장의 표정을 보고는 급정색하며 정자세로 고쳐 앉고, 점점 작아지는 목소리로)

칭찬 일색... 입니다.

김창석

(신경질적으로)

그래서~ 뭐? 지금 나한테 칭찬 댓글 자랑하러 왔어?

(의아한 듯 갸우뚱)

근데... 니들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갔냐?

박태수

(너스레를 떨며)

그러니까~ 마~침! 백과장이 고기를 못 먹어서 기운이 없다고~ 없다고~ 하도 투덜대길래, 제가

마~침! 요 앞 사거리 근처 삼겹살 집에 데려가지 않았겠습니까? 실컷 먹고, 아니 먹이고 나오는데,

마~침! 비명소리가 ‘꺄아~’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쏜살같이 달려 갔죠. 그래 가지구 이제 백과장이

왼쪽, 제가 오른쪽을 맡아 가지고...

김창석

(말을 자르며 짜증스럽다는 듯 혀를 찬다)

핵심이 뭔데? 마~침, 마~침! 뭐 네 인생도 마침! 해줘? 쯧!

박태수

(살짝 삐친 듯 입을 삐죽거리며)

체포해서 서로 데려왔죠. 그런데...

(다시 분위기를 끌어올리려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서장님, 그 홀딱남 보호자로 누가 왔는지 아십니까?

박태수가 잠시 뜸을 들인다. 김창석 서장, 그제야 관심이 생기는 듯 주목한다.

박태수가 말하려고 입을 여는 순간,

백도진

YBC 차수정 아나운서가 왔습니다. 피의자가 차수정 남편이래요.

김창석

(놀라며)

어? 차수정? 그 뉴스에 나오는 차수정?

박태수

(과하게 맞장구를 치며)

빙고~~ 바로 그 차수정 아나운서가 글쎄...

(침을 꿀꺽 삼키며)

자기 남편이 마약을 하는 것 같다면서, 직접 찍은 영상을 딱! 보여주는데... 나 진짜 깜~~짝

놀랬잖아~~...요

김창석, 마른침을 삼킨다. 박태수, 신이 나서 다음 말을 하려고 입을 여는 순간,

백도진

(박태수보다 한 템포 빠르게 치고 들어오며)

차수정이 미국에서 온 남편 친구들이 마약 공급책이라고 했대요.

김창석

(이리 저리 눈동자를 굴리며)

남편 친구들이 미국에서 마약을 가지고 와서, 자기 남편이랑 같이 마약을 했다는 거야? 잠깐...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왔을 거 아냐? 근데 어떻게 인천공항에서 안 걸렸지?

박태수

(몸을 앞으로 숙이며, 속삭이듯)

그쵸? 이상하죠? 그러니까 수사를 더 해야 되겠죠? 이게 폭행사건이라 일단 형사팀에 배정이

됐는데, 마약수사로 확대가 되면 형사팀만으로는 좀... 힘들지 않나 싶기도 하고... 암튼!

마약 투약자들 왕창 검거하고, 해외 마약류 밀반입하는 공급책에 유통책까지 일망타진으로다가 싹~

잡아 들이면!!

(테이블을 노크하듯 톡톡 두드리며)

마약실적... 꼴찌, 바로 탈출 각! 감이 딱 오시...죠?

잠시 고민에 빠지는 김창석 서장, 그의 머릿속에서 계산이 돌아간다.

김창석의 고민하는 표정을 유심히 살피는 백도진과 박태수, 의미심장한 미소와 눈짓을 교환한다.

김창석

(결심한 듯)

...좋아. 해보자.

(백도진을 보며)

그럼 이거 형사팀, 강력팀 공조로 진행하고 백 과장이 지휘해.

백도진과 박태수, 새어 나오는 웃음을 꾹 참으며, 애써 진지한 표정으로 김창석을 보고 고개를 끄덕인다.

김창석

(박태수를 보며)

그리고 박 과장은... 휴가가 있으니까, 다녀와서 언론 쪽 관심 끌 만한 보도 자료 기획하고.

박태수

(살짝 놀라며 백도진과 김창석을 번갈아 보고)

보도 자료요? 언론 플레이?

김창석

(나체 난동남 기사 화면이 열려 있는 테블릿을 가리키며)

엎어진 김에 어쩐다고~ 어차피 영등포경찰서 기사가 대문짝만 하게 났는데,

물들어 왔을 때, 노 저어야지~

박태수

(김창석의 의중을 파악하려 그의 표정에 시선을 고정하고, 노 젓는 시늉을 하며)

Oh, no~~~~!!

김창석

(박태수를 못 본 채, 테블릿을 들어 밀었다 땡겼다 사진을 유심히 보며)

야... 이거! 어우~ 쯧쯧...

백도진, 두 사람의 모습에 한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삐져 나오는 웃음을 참으려 한 손으로 눈을 가리고, 입술을 깨문다.

(카메라) 테블릿 화면으로 옮겨 클로즈업. 화면 속 두 사람의 우스꽝스러운 표정이 점점 확대되며,

(FADE OUT)

# S#20. 영등포경찰서, 조사실 (저녁)

몇 시간이 흐른 뒤.

조사실의 공기는 이전과 완전히 다르다. 광기는 사라지고, 차갑고 불안한 정적이 흐른다.

\*\*최성욱(나체 난동 피의자)\*\*은 아내가 가져온 옷으로 갈아입었지만, 그는 여전히 구석에 웅크린 채 맨발이다. 약 기운이 빠져나가며 밀려오는 현실의 공포로 미세하게 몸을 떨고 있다.

그의 앞에, 형사2과 강력7팀 소속 \*\*동민석 형사(30대, 경장)\*\*가 간이 마약 시약 검사 키트를 들고 와 앉는다. 그의 표정은 무심하고 건조하다.

동민석

(사무적으로)

최성욱씨.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간이 시약 검사 실시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그 말에 최성욱이 경기를 일으키듯 고개를 든다. 그의 눈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

최성욱

(목소리가 떨린다)

...아니... 아니! 검사 안 해! 나 안 해!

동민석

(귀찮다는 듯)

협조 안 하시면 공무집행방해죄 추가됩니다. 지금 상황 파악 안돼요?

최성욱

(거의 울부짖듯이)

변호사 불러 줘! 변호사 부르기 전까지는 나 아무것도 안 해! 나한테 손대지 마!

최성욱, 완전히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친다. 동민석이 한심하다는 듯 그를 쳐다보는 순간, 최성욱이 동민석에게 매달리며 절박하게 외친다.

최성욱

전화! 전화 한 통만 하게 해줘요! 제발! 딱 한 통만...!

그의 처절한 외침이 조사실을 울린다. 그는 마치 이 전화 한 통에 자신의 모든 운명이 걸려있다는 듯 보인다.

(FADE OUT)

****# S#21. 작가 아카데미 앞 (저녁)****

수강생들이 건물에서 쏟아져 나온다. 한서우도 같은 클래스 수강생 미진(여,30대 초반)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걸어 나온다.

건물 입구 한쪽에서, **\*\*전상준(탐사보도기자, 40대)\*\***가 누군가를 기다리듯 서성이고 있다.

푸석한 얼굴에 헐렁한 듯 낡아 보이는 재킷 차림, 조금은 지친 기색으로 건물에서 나오는 사람들 중 누군가를 찾으려고 목을 쭉 빼고, 눈동자를 분주히 움직인다.

그러다 한서우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와 인사하는 전상준.

놀란 한서우는 주위를 두리번거리고는 자신을 가리키며 “나?”라는 입모양을 한다.

전상준은 한서우를 쓱 훑어보고는 “이상한 여자” 라는 듯한 눈빛으로 미진에게 말한다.

전상준

(미진을 붙잡으며)

잠깐만! 잠깐만 얘기하자, 어?

**(화면 전환)**

건물 앞 인도 한 쪽에서 전상준과 미진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보고 있는 한서우.

두 사람의 관계, 그리고 그들이 대화내용이 궁금해 못 견디겠다는 듯한 눈빛으로 손톱을 물어 뜯고 있다.

한서우

(두 사람을 집요하게 바라보며 혼잣말로)

뭐지, 이 상황은? 누구지? 미진이 전 남친인가?

(연신 손톱을 물어 뜯으며, 머리를 좌우로 흔든다.)

아니야… 그렇다기엔 너무 아저씨잖아? 혹시 스폰?

(자신의 입을 몇 대 때리고)

미진이 같은 애한테… 으이구, 으이구!!

(건물 벽을 따라 몇 걸음 걸어갔다 돌아왔다 반복하면서 골똘히 생각에 빠져 중얼거린다)

근데... ‘잠깐만 얘기하자?’ 그랬으니까 미진이에게 볼일이 있다는 거고, 여기까지 찾아왔다는 건?

(이마를 탁 치고는 아픈 듯 문지르며)

미진이가 연락을 피했다는 거네. 아야파~스읍~

(갑자기 걸음을 딱 멈추고 전상준 쪽을 본다)

근데, 미진이가 여기 다니는 건 어떻게 알고 찾아왔지?

(깜짝 놀라 입을 막으며)

허? 혹시 스토커???

(머리카락을 마구 헝클며)

아~ 궁금해, 궁금해! 아놔~ 작가적 호기심... 은 아직 아니고, 작가지망생적 호기심 폭발로

사망하겠네, 진짜!

(들고 있던 노트로 부채질을 한다.)

에이~~~

그 때, 이야기를 마치고 한서우 쪽으로 걸어오는 미진. 한서우는 미진이의 팔을 잡아 끌며 부채질을 해준다.

한서우

(미진의 눈치를 살피며 애써 무심한 듯)

누구야? 혹시 너 괴롭혀?

미진

(씩 웃으며)

아니야! 그런 거! 전에 잠깐 같이 일했는데 내가 도망치듯 관뒀거든.

한서우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그럼 전 직장상사?

그 때 전상준이 다가와 두 사람 앞에 선다.

전상준

(미진에게 명함을 건네 주며)

미진아! 다시 한 번만 생각 좀 해줘. 연락 기다릴게. 내 연락처 지운 거 같으니까 여기, 명함

가져가고!

미진

(명함을 건네 주는 전상준의 손을 뿌리치며 정색)

다시 생각해 봐도 제 대답은 같아요.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한서우를 향해)

미안, 나 먼저 갈게!

미진이 휙 가버리고, 전상준도 실망한 표정으로 터덜터덜 자리를 뜬다.

그 때 바닥에 떨어져 있는 전상준의 명함이 한서우의 눈에 들어온다.

명함에는 **[탐사취재, 진실의 눈]** 이라는 문구가 있다.

그때, 지나가던 한 행인이 전상준을 알아보고 아는 척을 한다.

행인

어? 저... '진실의 눈' 기자님 아니세요? '줄리는 누구인가?' 방송 잘 봤습니다!

진짜 충격 그 자체더라고요! 응원합니다. 좋댓구알!! 몸조심 하시구요~

(손가락 하트를 만들어 보여준다.)

전상준

(민망한 듯 연신 인사를 하며 손하트로 답한다)

아이구~ 네네! 감사합니다.

그 말에, 한서우는 떨어져 있는 전상준의 명함을 집어 들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행인에게 멋쩍게 웃으며 인사하는 전상준을 쳐다본다.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재가 됐던 그 탐사취재 유튜브 방송.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지금, 자신의 눈앞에 서 있다. 한서우의 눈이 살짝 커진다.

그 때, 전상준이 한서우 쪽을 보고 둘은 어색한 목례를 주고받는다.

## ****제1부 대본 (갈등 시퀀스)****

# S#22. <엄마손 국밥> 식당 내부 (낮)

가게 안은 끓는 솥의 증기와 선풍기 바람이 뒤섞여 후덥지근하다.

**\*\*박순애(한서우 모, 60대)\*\***가 입구에서 두 사람을 맞이하며 환하게 웃는다.

**\*\*한정섭(한서우 부, 60대)\*\***은 카운터에 앉아, 신문 너머로 백도진을 ‘쓱’ 훑어보고는 다시 신문으로 시선을 돌린다. 백도진, 꾸벅 목례만 하고는 익숙한 듯 구석진 자리에 가 앉는다.

김민준, 싹싹하게 인사하며 뒤따라 들어선다.

김민준

아버지, 어머니! 저희 왔습니다!

박순애

아유~ 어서들 와요! 덥죠?

박순애, 카운터에 앉아 있는 한정섭의 등을 탁 치고, 눈짓으로 빨리 움직이라고 신호한다.

백도진, 컵에 물을 따른다.

한정섭이 백도진에게 신문을 접어 툭 던진다.

백도진은 건성으로 한정섭에게 꾸벅하고는 신문을 자기 앞으로 끌어다 놓고 시선을 신문에 고정한다.

한정섭

(퉁명스러운 듯 애정 어린 말투로)

그렇게 먹고도 국밥 안 질려?

김민준

(손사래 치며)

아뇨! 하나도 안 질려요.

(백도진을 양 손 검지로 가리킨다.)

하루라도 국밥을 못 드시면 입 안에 가시가 돋치는 분이 계셔서요~ 저도 국밥 안 먹으면 힘이

안나요.

(해맑게 웃는다)

한정섭

(그런 김민준이 귀엽다는 듯)

허이구~ 말이나 못하면! 근데 너는... 뭐가 그렇게 맨~날 해피하냐?

김민준

(물을 마시며 실없이 웃는다)

그때, 식당 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서우(작가지망생, 30대 초반)\*\*가 들어온다.

짜증이 가득 담긴 발소리.

한서우

(마구 헝클어진 머리가 땀에 절은 몰골로)

으~~ 더워! 날씨가 미친 거 같애, 아빠! 숨이 턱턱 막혀! 숨을 쉴 수가 없어! 아~ 진짜! 안 그래도

죽겠는데 날씨까지 나한테 왜 이래?

한정섭

(장난 꾸러기 표정으로)

왜 그런지 말해 줘? 일루 와 봐.

한서우

(한정섭에게 가까이 다가 가려다 정색하면서)

아빠~ 또, 아재개그면 나 진짜 안 참아!

한정섭 고개를 흔들며, 오라는 손짓한다.

한서우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눈을 게슴츠레 뜨고 한정섭을 본다.

이내 못이기는 척 한정섭에게 가까이 다가가 귀를 기울이는 제스처를 한다.

한정섭

(장난기 가득한 표정으로 속삭인다)

날씨가 봐도... 네가 만만하니까 그렇지!

(꿀밤을 톡 때린다)

한서우

(짜증내며 꽥 소리를 지른다)

아! 아파~~

한정섭

(딸이 귀엽다는 듯한 표정, 하지만 핀잔을 주며)

지 동생은 이 뙤약볕에 군생활 하느라 얼마나 고생하는데, 에어컨 팡팡 나오는 지하철 타고 와서 몇

걸음 걸었다고 호들갑은? 쯧쯧!

카메라, 식당 계산대 옆에 놓여있는 한연우의 육사 졸업 사진을 비춘다.

한서우

(신경질적으로 주방을 향해 발을 탕탕 구르며 걸어간다)

아! 진짜! 그저~~ 아들, 아들! 아들 밖에 모르지? 아빠 땜에 더 더워. 엄마~ 아빠 좀 봐!

김민준, 그 광경을 재미있다는 듯 쳐다보다가 백도진에게 몸을 기울여 속삭인다.

김민준

(소곤소곤)

저분이 이 집 따님인데, 시나리오 작가 지망생이래요. 아드님은 육사 출신 소위, 무려 정보사령부!

백도진, 무심하게 그녀의 뒷모습을 휙 본다.

백도진

(신문을 들어 뒤집어 접으며, 혼잣말처럼, 하지만 작지 않게)

...누나는 작가지망생, 남동생은 육사 출신 소위~ 음... 짜증날 만도 하네~

백수의 자격지심이야말로 짜증의 원천 에너지거든~ 심지어 무한해. 탈백수 해야 끝나지.

김민준

(입을 가리며 소곤소곤)

아! 그리고, 여기 주인 아저씨... 전직 형사래요.

백도진

(이미 알고 있으나 모르는 척 과장되게)

...진~짜?

(김민준을 빤히 보다 숟가락으로 머리를 톡 때리며)

근데... 넌 별 걸 다 안다? 수사 정보를 그렇게 꾀고 있어봐라 좀!

(물을 한 모금 마시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한다)

암튼 넌 연구 대상이야.

김민준

(너스레를 떨며)

에이~ 수사 대상 아닌 게 어디예요?

백도진, 어이없는 표정으로 김민준을 쳐다본다. 그 순간, 쟁반에 밑반찬을 가득 들고 온 박순애.

박순애

(반찬을 테이블 위에 하나씩 내려 놓으며 살갑게 수다를 떤다, 이야기 중간중간 연신 웃는다)

아이구~(ㅎㅎㅎ) 우리 집 특급 단골 손님들이신데(ㅎㅎㅎ), 국밥집 반찬이 맨날 그게 그거라

어째? (ㅎㅎㅎ) 그래도 많이들 들어요. 우리 백과장님~(ㅎㅎㅎ) 그리고 김경위님~(ㅎㅎㅎ) 이렇게

푹푹 찌는 날씨에도 국밥 먹으러 와주고, (ㅎㅎㅎ)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쾌활하게 웃는다)

백도진

(박순애의 수다가 익숙한 듯 건성으로)

...아, 예~ 예~

한정섭

(국밥 두 그릇을 들고 와서 내려 놓으며 김민준에게)

경위? 벌써? 서른도 안돼 보이는데?

김민준

(머리를 긁적이며)

아~ 제가 경찰간부후보생 시험 보구 들어와서... 그리고 서른 넘었어요. 서른 하나!

박순애

(손뼉을 치며)

어머어머~(ㅎㅎㅎ) 웬 일이야? 우리 연우도 서른 하난데! (ㅎㅎㅎ) 어쩐지 볼 때마다 아들 같고 정이

간다 했더니... (ㅎㅎㅎ) 우리 아들이랑 동갑이네~~ (ㅎㅎㅎ)

한정섭

(기특하다는 표정으로 엄지 척하며)

이야~ 서른 하나에 경위~

(괜시리 백도진에게 시비조로)

백과장은 저 나이에 순경 아니었나? 가만 있어보자...보아~하니 안사람 있는 몰골은 아닌데...

(백도진의 반응이 없자, 도발하려는 듯)

기혼이야? 미혼이야?

백도진

(국밥 한 술 뜨다 말고 한정섭을 보고)

이혼인데요?

백도진, 표정 변화 없이 한정섭을 쳐다본다.

한정섭, 곤란한 듯 헛기침을 하면서 돌아선다.

박순애, 한정섭의 등을 때리며 떠 민다.

김민준

(놀라서 눈이 커진다. 이내 의아한 듯 갸우뚱)

과장님! 결혼을 하셨었어요? 우와~ 깜놀!!

백도진

(김민준을 황당한 표정으로 빤히 보며)

너 지금 이혼이 아니라 결혼에 놀란 거니?

김민준은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국밥을 먹으며 연신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백도진은 어이없는 표정으로 김민준을 보며 국밥을 떠서 천천히 입으로 가져간다.

그 때, 백도진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린다.

[휴대폰 화면 클로즈업] 발신자 :독사

백도진, 김민준에게 먹으라고 손짓하고는 휴대폰을 들고 식당 밖으로 나간다.

# S#23. 식당 앞 (낮)

백도진, 가게 입구 옆 처마 밑에 서서 전화를 받는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빠르다.

백도진

어! 그래, 독사야! 내가 말한 거... 좀 알아봤어?

(잠시 듣더니)

... 그래? 그쪽으로 연결되는 애들 있는지 좀 더 알아봐. 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어?

(잠시 뜸을 들이다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독사야! 근데 너... 법의 테두리 안에서 노는 거 맞지?! 선 넘어가면 이 형님이 이놈~한다! 명심해!!

# S#24. 주방 안 (낮)

한서우, 엄마 박순애가 나물을 무치는 옆에서 씩씩댄다.

한서우

(조리대에 기대어 팔짱 낀 채로 어이없다는 듯 말하면서 점점 흥분한다)

엄마, 저 사람 누구야? 자기가 뭔데, 어? 나더러 뭐? 백수의 자격지심~~ 참 나! 자기가 날 알아?

아니 나에 대해 뭘 안다고 그딴 소릴 막해? 형사면 다야? 작가지망생이 왜 백수야? 왜?

박순애

(파를 송송 썰며, 무심하게)

백 과장이 맞는 말 했네, 뭐! 원래 맞는 말이 듣기 싫은 법이지.

밖에서 김민준의 목소리가 들린다.

김민준 (V.O.)

잘 먹었습니다.

박순애 (V.O.)

(얼른 주방 밖으로 나가서)

아이구~ 그래요. (ㅎㅎㅎ) 또 와요~(ㅎㅎㅎ)

한서우, 다시 들어오는 엄마에게 눈을 흘긴다.

한서우

(진심으로 억울한 듯)

엄마, 난 준비가 됐어. 이제 솔직히 털어놔도 돼. 날 낳아준 친엄마, 어디 계셔?

박순애, 서연의 등을 한 대 때리며, 딸의 입에 무치던 나물을 넣어준다.

나물을 씹으며 눈을 흘기는 한서우.

(FADE OUT)

# S#25. 전상준의 지하 사무실 (밤)

어둠과 퀴퀴한 냄새가 뒤섞인, 참담하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지하 사무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중심, 낡은 노트북과 카메라가 세팅되어 있다.

\*\*전상준(40대)\*\*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다린 셔츠를 입고, 조명 하나에 의지해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는 전상준.

모든 것을 잃고 무기력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그의 눈빛은 굶주린 맹수처럼 매섭게 빛난다.

노트북 화면에는 [진실의 눈 LIVE]라는 빨간 딱지와 함께, 그의 방송이 송출되고 있다.

전상준

(카메라를 꿰뚫을 듯,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실의 눈, 전상준입니다.

그의 뒤로, 가상 스튜디오 배경이 어설프게 합성되어 있다.

전상준

우리에겐 누군가의 과거를 함부로 재단할 권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 부인의

과거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그녀가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 과연 그녀는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전상준, 준비한 자료 사진 하나를 카메라 앞에 들어 보인다.

오래된 사진 속, 지금과는 사뭇 다른 인상의 젊은 여자가 웃고 있다.

전상준

이 사진 속 여성은 '김명신'입니다. 그런데 김명신은 이제 세상 어디에도 없는 사람입니다. 사망하지

않았는데 세상에서 사라진 이 여성. 그녀는 현재 얼굴과 이름을 완전히 바꾸고 전혀 다른 인물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대체 무엇을, 왜 지우고 싶었던 걸까요?

(비릿하게 웃으며)

그녀의 현재 이름은 바로 '윤세은'입니다.

진실의 눈 방송을 보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들의 모습.

그들의 스마트폰 화면 속 전상준의 눈빛은 더욱 날카롭게 빛난다.

전상준(화면 속)

'진실의 눈'은, 그녀가 지우려 했던 그 과거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 나가려고 합니다. 진실을

갈망하는 여러분이 계시는 한 진실의 눈은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가 방송 종료 버튼을 누르는 순간, 화면 속의 날카로운 저널리스트는 사라진다.

(S.E.) '철컥'.

노트북을 덮는 소리와 함께, 그는 다시 어둠 속의 초라한 패배자로 돌아온다.

그는 의자 깊숙이 몸을 묻고, 거친 숨을 몰아쉰다. 급히 약을 찾아 입에 털어 넣고는 테이블에 엎드린다.

방금 전까지 세상을 향해 포효하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깊은 공황과 우울에 잠식당한 한 남자의 떨리는 어깨만이 남아있다.

(FADE OUT)

# S#26. 엄마손 국밥, 주방과 홀 (저녁)

영업이 끝난 식당. 홀에는 의자들이 테이블 위에 거꾸로 올려져 있다.

주방과 홀의 경계, 큰 테이블에 한서우와 한정섭, 박순애가 나란히 앉아 다음 날 장사 준비를 하고 있다. 한정섭은 묵묵히 고기의 기름을 발라내고, 박순애는 배추김치를 버무리고 있다.

한서우는 짜증난다는 듯한 표정으로 마늘을 까고 있다. 홀 한쪽 벽에 걸린 TV에서는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다.

**뉴스 앵커 (TV-SOUND)**

어제 오후 퇴근길 '묻지마 흉기' 난동으로 1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경기 성남 분당 서현역은 아직도 공포와 불안이 가득합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한은지 기자

박순애, 놀라서 TV를 쳐다본다. 그녀의 손이 멈춘다.

(카메라) TV화면을 비춘다.

**취재 기자 (TV-SOUND)**

어제 오후 5시 55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1층과 2층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졌습니다. 용의자 22살 최모 씨가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마구 휘둘러 시민 9명이 다쳤고 이 중 8명은 중상입니다. 최씨는 범행 전 모닝 차량으로 백화점 앞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들이받아 5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S.E.) 뉴스 사운드가 백그라운드에 깔리고…

이에 따라 이번 흉기난동으로 다친 피해자 모두 14명이고 대부분 중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7월 신림역 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묻지마 범죄'와의 연관성을 조사...

박순애

(혀를 차며)

어머, 어머, 저걸 어째? 세상에, 아유~ 끔찍해라.

박순애, 걱정스러운 눈으로 딸 한서우를 본다.

박순애

한서우, 너 절대 밤늦게 돌아다니지 마! 알았어?

한서우

(마늘을 까며, 귀찮다는 듯)

엄마! 저런 미친 놈들이 밤에만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나 일찍부터 여기 묶어 놓고 부려 먹을라

그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한정섭

(고기를 손질하며, 무심하게 툭 던진다)

니가 뭐 할 줄 안다고, 너 같은 걸 부려먹자고 비싼 밥 먹고 쉰 소릴 하겠냐?

한정섭의 말에 한서우가 아빠를 쏘아본다. 한정섭, 딸과 눈도 맞추지 않고 말을 잇는다.

그의 목소리엔 전직 형사의 냉소가 묻어난다.

한정섭

(고기 기름 바르는 일을 멈추지 않고)

저런 놈들이 왜 무서운지 알아? 너? 이유도 없고, 동기도 없고, 그냥 막 찌르는 거거든. 아무나

닥치는 대로! 지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저러는 거야. 미친 놈들이 옛날에는 없었겠니?

아빠가 봤을 때는 말이야, 그때나 지금이나 원래 미친 놈들 숫자는 비슷해요. 근데, 지금은 멀쩡한

놈도 미친 놈으로 만들어 버리는 약이 있잖아!

박순애

(분노한 표정과 말투로)

그런 약이 어딨어? 그리구 그런 약은 있어도 팔면 안 되지~ 어떤 미친 년놈이 그런 약을 팔고

난리야?

한정섭

(이해 안 간다는 듯한 표정, 안경 너머로 박순애를 보며)

마약, 마약, 지금 마약 얘기하는 아니야?

박순애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아~ 난 또?

(하던 일을 멈추고, 손뼉을 연신 치며)

맞다, 맞다! 며칠 전에 요 사거리에서 홀딱 벗고, 지랄하던 놈 있잖아. 백 과장, 박 과장이

때려잡았다는...

한서우

(빈정상한 표정으로 비아냥대며)

백 과장? 아~ 그 막말모드가 디폴트인?

박순애

디폴~ 뭐? 암튼 그 홀딱 벗고 지랄발광하던 그 놈도 마약하고 그런 거래! 그러니까 딸, 너는 해

떨어지기 전에 무조건 가게로 와서 엄마, 아빠 옆에 딱 붙어 있다가 같이 들어가.

(소리를 빽 지르며 눈을 흘긴다)

알았어? 몰랐어?

한서우

(마늘을 까며, 귀찮다는 듯)

눼~ 눼~

한서우, 짜증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TV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린다.

TV 화면이 바뀌고, 세련된 영상미의 드라마 재방송이 나온다.

극 중 주인공인 **\*\*배우 이현성(40대)\*\***이 감미로운 목소리로 말하고 있다.

한서우

(투덜대며)

맨날 저런 흉흉한 뉴스만 보니까 걱정들이 드글드글하시지! 어?

한서우, TV 속 이현성을 넋 놓고 바라본다.

그런 딸을 어이없다는 듯 쳐다보는 한정섭, 박순애

한서우

(황홀한 표정으로)

...음 ...내 이상형!!

박순애

(어이없다는 듯 한서우를 보며)

얼씨구! 언제는 빅뱅인지 박빙인지, 허구헌날 지디, 지디 노래를 불러 쌌더만,

이젠 저 김현성이로 갈아탔냐? 하여튼 의리 없는 지지배.

한서우

...엄마! 김현성이 아니구 이현성! 이, 현, 성! 이현성은 이제

(영어 발음을 한 껏 굴리며)

글로붤 탑스타알~ 이니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애 여사님!!

근데, 엄마는 꼭 연예인들 성을 다 바꿔놓드라? 그거 성희롱이야~~

*(화들짝 놀라 자신의 입술을 톡톡 때리며)*

아~ 어떡해, 어떡해!! 내가 이런 아재개그를?

*(아빠 쪽을 휙 보고 눈을 흘긴다)*

이게 다 아빠 때문이야.

한정섭

글로발 톱스타? 쯧쯧쯧. 한 방에 훅 가는 게 저 바닥이야, 이 녀석아. 아빠가 형사 시절에 제일 많이

만나 본 놈들이... 어제까지 잘나가시던 분들이거든.

한서우는 아버지의 말을 들은 체 만 체하며, 다시 TV로 시선을 고정시키고, TV 속 이현성의 모습이 클로즈업된다.

(FADE OUT)

# S#27. 대통령 집무실 (밤)

**\*\*김강호(대통령, 60대)\*\***, 소파에 깊숙이 파묻혀 있다.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다. 그의 앞 테이블에는 거의 비어 있는 양주 병과 크리스털 온더락 잔이 놓여있다. **\*\*강석훈(대통령 비서실장, 40대)\*\***이 그의 옆에 미동없이 서 있다. 김강호는 TV 속보를 보고 있던 태블릿을 신경질적으로 테이블에 던진다. 화면에는 '계속되는 묻지마 범죄, 시민들 불안 가중'이라는 자막이 떠 있다.

김강호

(씩씩거리며)

...대체 뭐 하는 거야, 이것들은! 경찰이고 검찰이고 하튼 도움이 안돼.

그의 앞에, 강석훈 비서실장이 그림자처럼 서 있다.

김강호

(강석훈을 휙 돌아보며)

황덕한이 당장 불러.

강석훈

(표정 변화 없이)

각하, 오늘은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또... 주무(酒務)에 드셨으니... 내일 아침 일찍...

김강호

(벌떡 일어나며 강석훈의 말을 끊고)

뭐? 주무~ 내가 너, 토 달지 말랬지?

김강호, 눈을 희번덕이며 들고 있던 잔을 벽에 집어 던진다.

(S.E. 잔 깨지는 소리)\_쨍그랑! 크리스털 잔이 산산조각 난다.

김강호

(호통을 치며)

당장 안 불러?! 이런 건방진 쉐끼.

강석훈, 휴대전화(비화폰)를 들고 익숙하게 번호를 누르고 고개를 돌려 통화한다.

김강호, 씩씩대며 병채 들고 양주를 들이켠다. 방금 통화한 비화폰을 김강호에게 건넨다.

김강호, 뭐냐는 듯 신경질적으로 강석훈을 노려본다.

강석훈

(두 손으로 전화기를 내밀며)

법무부 장관입니다.

김강호, 전화를 받지 않고 테이블을 양팔로 짚은 채 고개를 푹 숙인다. 잠시 침묵.

김강호

(콧방귀를 뀌고, 나지막이 읊조리다 소리를 버럭 지른다)

...하! 근데 이 쉐끼들이 진짜!

김강호, 살벌한 눈빛으로 강석훈을 쏘아본다.

# S#28. 형사2과 강력7팀 (저녁)

백도진과 김민준은 사건 브리핑 자료를 준비중이다. 사무실로 들어서는 강력7팀 형사들(동민석 경장, 방성준, 신유빈 순경, 기승호 경장)의 시선이 백도진에게 향한다. 팀원들의 얼굴에는 거부감이 역력하다. 백도진, 한숨을 한 번 쉬고는 보드 앞으로 간다. 팀원들에게 사건의 개요를 정리한 문서를 나눠주는 김민준.

동민석

(서류를 받으며 김민준을 의아한 듯 쳐다본다)

김민준 경위가 왜 여기 계셔? 지능범죄수사팀 한가한가?

백도진

어... 내가 김경위한테 이번 수사 지원하라고 했어. 영등포사거리 나체남 알지?

그거 보면 알겠지만 이거 단순 폭행사건 아니다.

김민준

(서류를 나눠주면서)

폭행사건 피의자 최성욱, 마약 투약 정황이 나왔습니다.

백도진

형사팀만으로는 수사가 어렵고...

동민석

(백도진이 말하는 중 손을 들고)

그럼 이거 마약팀에 넘겨야 하는 거 아닙니까?

백도진

(책상을 두 팔고 짚으며)

아니~ 일단, 강력7팀이 맡는다! 동방신기! 이의 없지?

방성준

(고개를 못 들고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이의가 있어도 없어야죠!

동민석, 방성준, 신유빈, 기승호 힘없는 목소리로 어쩔 수 없이 대답한다.

신유빈

(회전 의자를 휙 돌리며)

아이고~ 집에는 다 갔구나!!

기승호

(눈치 보며 나지막이)

팀장님도 휴가 가셔서 안 계시는데...

백도진

(의자에 앉으며)

응, 그래서 내가 지휘할 거야. 알았나? 동방신기!!

강력7팀 형사들, 백도진의 ‘동방신기’ 발언에 질색하다가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진다.

격무에 시달린 그들의 얼굴에 노골적인 거부감이 스친다.

백도진, 그 모습을 보고 순간 울컥 화가 치밀어 올라 한마디 하려다 참는다.

### # S#29. 경찰서 건물 앞 옥외 주차장(저녁)

백도진과 김민준이 커피가 든 종이컵을 하나씩 들고 마시며 이야기를 나눈다.

김민준

(백도진의 심기를 살피며)

팀장님! 걱정 마세요. 제가 다른 선배님들 몫까지 일당백… 까지는 아니고,

(군인 자세로 외치듯)

일당사 정도는 해 보겠습니다~

백도진

(민준의 재롱에 피식 웃으며)

그래, 고맙다! 내가 너 땜에 웃는다. 근데... 선배님? 니가 재들보다 직급이 위잖아.

박태수

(두 사람을 놀래키며)

어이!

백도진

(놀란 게 민망해서 박태수에게 핀잔을 주며)

아~이 진짜, 안 그대로 짜증나는데. 너까지 왜 그러냐?

박태수

(뒷짐을 지고 사극 톤으로)

여기들 있었구만. 허허! 내 자네가 여기 있는 줄도 모르고 한참을 찾아다녔지 뭔가?

(과장된 웃음)

하하하하!

(백도진에게 어깨 동무를 하며)

이보게, 백과장! 내 자네에게 청이 하나 있네!

백도진

(몸서리를 치며 도망치듯 자리를 뜬다)

어우~ 어우~ 30년을 봤는데도 적응이 안돼!

김민준, 그런 두사람을 보며 재미있다는 듯 킥킥거리다가 박태수와 눈이 마주친다.

박태수 눈빛이 살짝 흔들린다.

김민준

(박태수의 뒤통수에 대고 외치듯)

박과장님 개그코드 제 취향 저격입니다. 취저, 취저!!

박태수

(뒤를 돌아 민준을 휙 보고는 도망치듯 달려간다. 점점 멀어지는 목소리)

어허! 이보게~ 백과장! 어디 가시나? 내 할 말이 있어서 그러네! 내 이제 곧 며칠 자리를 비워야

하는데 말일세~ 하하하하!

(어깨를 들썩이며 과장된 웃음소리를 낸다.)

몸서리치며 도망치는 백도진, 그런 그를 쫓아가는 박태수, 이 모습을 재미있다는 듯 뒤에서 바라보는 김민준!

# S#30. 대통령 관저, 회의실 (아침)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회의실.

김강호 대통령과 \*\***황덕한(법무부장관,50대)**\*\*이 긴 테이블 양 끝에 마주 앉아있다.

김강호는 숙취로 얼굴이 부어 있다.

무거운 침묵 속, **김강호**가 **황덕한**을 추궁한다.

테이블 위에 ‘묻지마 범죄’에 대한 기사가 1면에 실린 신문이 놓여 있다.

김강호

(신문을 들었다가 테이블 위에 던지며)

이거, 대책 뭐야?

황덕한, 못마땅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입을 꾹 다문 채 묵묵부답이다.

그의 침묵에 김강호의 짜증이 다시 올라오는 순간,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고, **\*\*영부인 윤세은(50대)\*\***이 실크 가운 차림으로 씩씩대며 들어와 스마트폰을 테이블에 던진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다.

윤세은

(짜증스러운 말투로)

이런 애들 계속 설치게 놔 둘거야, 진짜?

테이블 위 폰 줌인. 화면에는 전상준의 유튜브 방송이 떠 있다.

[진실의 눈] 특종! 영부인의 숨겨진 이름, '줄리'는 누구인가?

그때, 윤세은의 전화가 울린다.

[발신: 법사\_K]

윤세은, 얼른 전화기를 들고 통화하며 나간다.

윤세은 (V.O.)

(점점 멀어지는 목소리)

네~ 선생님... 그래요? 잘 됐네요.

황덕한

(나가는 윤세은의 뒷모습을 보며 김강호에게)

여사님 관련 리스크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김강호

(신경질적으로 황덕한을 노려본다)

## 제1부 대본 (절정 시퀀스)

# S#31. 유흥가 뒷골목, 허름한 당구장 (밤)

짜장면 그릇이 널려 있는 당구장 한쪽.

**백도진**이 \*\***독사(백도진의 정보원, 30대)**와 마주 앉아있다.

독사는 짜장면을 게걸스럽게 먹고 있다.

강력7팀 동방신기 형사들(동민석 경장, 방성준 순경, 신유빈 순경, 기승호 경장)은

당구장 안에서 탐문, 탐색 중이다.

백도진

(최성욱이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테이블에 던지며)

이런 애들, 약 어디서 구하는지 좀 알아봐.

독사

(입을 닦으며 사진을 유심히 본다)

때깔이 우리 쪽 애들이 아닌데?

(사진을 집어 들며)

요즘 강남 바닥에 미국물 먹은 어린 부자 놈들한테만 도는 ‘신상’이 있다는 얘기가 돌긴 하는데...

근데 이런 애들은 지들이 직접 공수해 와서 지들끼리만 노니까, 우리랑은 연결이 안된다고 봐야지?

백도진

(독사를 쓱 쳐다보고 휴대폰을 꺼내 들며)

그래?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독사

(백도진의 눈치를 보고는 다시 짜장면을 먹으며, 얄밉게 말한다)

아유~ 죄송해서 어째? 여기까지 오셨는데...

백도진

(박태수에게 전화를 걸어 과장되게 큰 소리로 말한다)

어~ 박과장! 저기 거 뭐야? 내가 사기사건 하나 제보 할라고. 그 감자마켓에 허위매물 올린 거!

그거 상습이면 형량이 어떻게 되나?...

(과장된 말투로 독사를 보며)

그래? 생각보다 쎄네~... 에이~ 오긴 뭘 와. 내가 데려갈게.

...어어~ 지금 내 앞에 있거든.

독사

(짜장면을 입에 문 채, 고개를 들고 백도진을 본다)

백도진

(독사를 보며, 입모양과 손짓으로 계속 먹으라는 제스처를 한다)

독사

(다급하게 짜장면을 씹어 삼키고 일어나 백도진의 휴대폰을 빼앗아 끊는다. 한껏 아양을 떨며)

아이~ 형님도 참! 여전히 성격은 급하시구나? 한국말은 끝까지 들으셔야죠~

백도진

(휴대폰을 독사에게서 휙 빼앗으며)

그래? 그럼 마저 얘기해봐. 여기까지 오셨는데... 뭐?

독사

(의자에 다리를 모으고 양손을 포개 공손한 자세로 앉는다)

여기까지 오셨는데... 내가 가만 있겠냐~ 이런 말이죠~

백도진

(천천히 일어나 독사의 어깨를 힘껏 누르며)

역시... 독사 너 밖에 없다. 좋은 소식 기다리마.

독사

(어깨가 아파 얼굴을 찡그리고 억지 웃음을 지으며 겨우 말한다)

헤헤헤... 예예~

백도진

(독사의 등을 두드리며 살벌한 미소를 짓는다)

그리고... 허위매물 내리고, 받은 돈 돌려주자. 알았지?

독사

(화들짝 놀라고는 고분고분하게)

예?... 예~

(고개를 백도진의 반대쪽으로 돌리고 인상을 쓰며 입모양으로 욕한다)

백도진

(당구장 입구 쪽으로 걸어가며)

독사야~ 욕은 하지 말구!

(형사들에게)

동방신기! 가자!

# S#32. 빠른 몽타주 – 탐문 수사

**(A) 형사2과 사무실: 김민준이 최성욱의 카드 내역과 유학생 커뮤니티 SNS를 밤새워 교차 분석한다.**

**그의 모니터에 몇몇 인물들의 사진과 동선이 하나의 네트워크처럼 연결되기 시작한다.**

**(B) 강남의 고급 바 앞:** 강력7팀 형사들(동민석 경장, 신유빈 순경, 기승호 경장)이 **차 안에서 잠복 중이다. 겉모습만으로도 수십억을 걸친 듯한 젊은이들이 스포츠카에서 내려 바로 들어간다.**

**(C) 다시 사무실: 김민준이 마침내 유의미한 데이터를 찾아낸다. 최성욱이 난동을 부리기 며칠 전,**

**한 유학생에게 거액을 송금한 내역. 그리고 그 유학생의 SNS에는, 해외에서 배송된 한정판 스니커즈 박스를 자랑하는 사진이 올라와 있다.**

****김민준****

**(모니터를 보며)**

**...찾았다.**

**(몽타주 끝)**

**김민준, 백도진에게 달려가 노트북을 보여준다.**

****김민준****

**팀장님! 이 놈입니다! 최성욱한테 돈 받고, 해외에서 운동화 밑창에 약 숨겨서 보내준 놈!**

**화면에는 말끔하게 생긴 20대 유학생의 사진이 떠 있다.**

**백도진의 눈이 번뜩인다. 이것이 바로 '나체 난동남'의 마약 구매 정황이다.**

# S#33. 영등포경찰서, 형사1과장실 (같은 시각)

**박태수**가 착잡한 표정으로 서류를 보고 있다. 전화벨이 울린다.

****박태수****

**(눈은 서류에 고정한 채 더듬거려 전화기를 든다)**

영등포서 형사1과 박태수 과장입니다.

남부지검 부장검사 (V.O.)

**(**정중하지만 차가운 목소리**)**

박태수 과장님. 저, 남부지검 김성규 부장입니다.

박태수의 얼굴이 순간 굳는다. 관할검찰청 부장검사가 자신에게 직접 전화를 할 이유가 없다.

남부지검 부장검사 (V.O.)

다름이 아니라, 영등포서에서 맡고 계신 음... 최성욱 씨 폭행 사건 말입니다.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도 원만히 진행 중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박태수****

...예, 뭐...

남부지검 부장검사 (V.O.)

단순 폭행 사건이잖아요..., 불필요한 인권 침해 소지 없도록, 잘 마무리해 주십시오.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성규 부장검사가 '부탁'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그 뉘앙스는 명백한 '경고'다.

박태수,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굳은 얼굴로 수화기를 들고 있다.

전화기 너머로,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그의 목을 조여오는 듯한 압박감이 느껴진다.

(FADE OUT)

# S#34. 영등포경찰서, 조사실 (며칠 후, 낮)

며칠 전과 같은 조사실.

하지만 공기는 완전히 다르다. 한쪽에는 **백도진**이 앉아있고, 맞은편, 피의자 **최성욱**이 앉아있다.

며칠 전의 불안에 떨던 모습은 온데간데없다. 그는 머리를 노랗게 탈색하고, 눈썹까지 밀어버렸다.

말끔한 정장 차림 옆에는, 대형 로펌 출신의 **VVIP 전문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며 그의 옆자리에 앉아있다.

백도진

(최성욱과 변호사를 한 번씩 쳐다본다)

최성욱씨. 지난 7월 28일, 유학생 박선우(가명)에게 500만 원을 송금한 내역 확인됐습니다.

박선우가 해외에서 보내준 한정판 스니커즈, 어디 있습니까?

변호사

(백도진의 말을 자르며,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의뢰인은 현재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저와 말씀하시죠. 그 신발은 단순한 선물이었고,

현재는 분실한 상태라고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피해자와는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했고, 합의서도

제출했습니다.

백도진

(변호사를 보며)

합의서라... 이거 단순 폭행사건 아니구 마약사건으로 전환됐는데 모르셨나?

변호사

(백도진을 똑바로 응시하며 흐트러짐 없이)

증거도 없이 갑자기 마약 사건이라니 너무 무리한 수사진행 아닙니까?

백도진

(최성욱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소환조사 출석 미루다가 머리 탈색하고, 전신 제모하고 나타났는데...

이게 저 최성욱 씨가 약쟁이라는 증거 아니고 뭡니까?

변호사

(백도진을 똑바로 응시하며 약간 격앙되어)

말씀 가려 하시죠? 약쟁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모르십니까?

****최성욱****

**(**백도진을 보며, 처음으로 입을 연다. 비웃음이 가득하다.**)**

형사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백도진을 조롱하듯)

당신들은... 날 못 건드린다고.

최성욱의 조롱 섞인 말. 백도진, 책상을 '쾅' 내리치려다 간신히 주먹을 쥐고 참는다.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린다. 법과 절차라는 이름 아래, 눈앞의 범죄를 놓쳐야만 하는 형사의 무력감과 분노가 그의 얼굴에 스친다.

# S#35. 형사2과장실 (밤)

**백도진**이 사무실에서 압수수색 영장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그의 얼굴은 지쳐 있지만, 눈빛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때, **박태수**가 들어온다.

그의 손에는 서류 한 장이 들려 있다.

백도진

(서류에서 눈도 떼지 않고 박태수에게)

어... 잘 왔어. 이 영장 좀 검토하고 청구 좀 해줘.

박태수

(백도진의 책상 위에 서류를 내려 놓으며)

백도진, 그제야 고개를 든다. 박태수가 내민 것은, 최성욱과 폭행 피해자 간의 \*\*'형사 합의서'\*\*다.

박태수

최성욱, 피해자한테 억 소리 나는 합의금 주고 사건 끝냈어. 폭행, 반의사불벌죄야.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는다는데, 우리가 뭘 더 할 수 있겠냐?

백도진

(합의서를 힐끗 보고 눈을 들어 박태수를 보며)

...합의? 폭행 사건은 얼마든지 끝내라 그래! 내가 마약으로 다시 엮어 줄테니까!

(그의 눈은 분노와 집요함으로 이글거린다)

박태수

(약간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증거 없잖아. 네가 신청한 그 영장? 100% 기각이야.

백도진

(박태수의 목소리에서 짜증을 느끼고 의아하지만 달래듯이)

박과장님! 증거를 찾을라구 압색을 하는 거죠~ 증거가 있으면 왜 압색을 합니까?

박태수

(지친 목소리로)

남부지검 부장검사한테 전화 왔었어. 부장이 움직였는데 어느 검사가 그 영장을 내주겠냐?

백도진

(황당한 표정으로)

부장... 검사가? 너한테 직접?

(어이없어 하며 허공에 대고)

하! 부장검사~? 부장검사~? 하! 니 빽은 부장검사냐? 내 빽은 삼장법사다~이 새끼야!

박태수는 근심 가득한 표정으로 백도진의 모습을 바라본다.

(FADE OUT)

# S#36. 전상준의 지하 사무실 (밤)

어둠과 퀴퀴한 냄새가 뒤섞인, 참담하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지하 사무실.

그 중심에, 전상준이 낡은 의자에 기대어 멍하니 노트북 화면을 보고 있다.

화면 속에서는, 자신이 만들었던 독립언론사 '더스피릿'의 라이브 방송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그 방송을 진행하는 것은, 자신을 배신한 옛 동료

**\*\*계진우(40대)**\*\*와 **지상수감독(현 더스피릿 대표, 전직 기자)**다.

계진우, 지감독 (화면 속)

(가증스러운 미소와 밝은 목소리로)

시민언론 더 스피릿!! 계진우와 지감독의 “기자정신” 라이브 방송, 시작합니다.

계진우 (화면 속)

(자신만만하게)

이미 썸네일을 보고 들어오셨죠? 저희 '더스피릿'이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젊고 아리따운 바이올리니스트가 제보한 내용인데요!

황덕한과 김강호가 학동소재 뭐 유흥업소에서~

지감독 (화면 속)

(끼어들며 맞장구를 친다)

에헤이! 뭘 그렇게 돌려 말하나? 룸싸롱, 학동 룸싸롱! 여기는1% 멤버쉽 룸싸롱입니다.

거기서 술을 마셨겠지! 누구랑? 국내 최대 로펌, 법무법인 C&C 변호사들이랑!

그 술자리에 바이올리니스트 A씨가 불려갔다는 거 아니야?

계진우 (화면 속)

맞습니다. 바로 그 바이올리니스트 A씨의 생생한 육성 녹취!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S.E. 변조된 여성의 목소리 백그라운드로 깔린다)  
녹취 내용: 내가 오늘 알바하러 갔잖아. 거기 학동 (삐). 근데 거기 김강호랑 황덕한이랑 다 있었다니까?

C&C 변호사 한 10명인가랑 같이... 황덕한이 지 노래한다고 나한테 반주하라 그러구! 완전 진상이야.

방송 화면에 [단독], [충격 증언] 같은 자극적인 자막이 번쩍인다.

전상준, 의아한 표정으로 화면을 본다. 그는 본능적으로 책상 위 서류더미를 뒤적인다.

그가 찾아낸 것은, 과거 자신이 직접 취재했던 너덜너덜한 파일.

**[바이올리니스트 A씨 스토킹 사건]**

그가 직접 손으로 메모한 내용이 눈에 들어온다.

**[제보자: A씨의 전 남자친구. 신빙성 낮음. 팩트체크 필수. 녹취 내용 사실 확인 불가.]**

전상준

(화면과 메모를 번갈아 보며 혼잣말로)

... 저 미친 새끼...

그때, 방송 화면 실시간 채팅창이 빠르게 올라간다.

[시청자 채팅: 근데 전상준 대표님은 어디 계신가요?]

[시청자 채팅: 상준이 형 보고 싶어요!]

채팅을 본 계인구의 표정이 순간 굳더니, 이내 능구렁이 같은 미소를 짓는다.

계인구 (화면 속)

(애써 안타깝다는 듯)

아... 전상준 대표님 이야기...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도 그분을 믿고 따랐습니다만... 회사 자금을

그렇게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배임까지 저지를 줄은... 저희도 충격이 큽니다. 진실을 말해야 하는

언론사로서, 동료의 잘못을 덮을 수는 없었습니다.

계인구의 뻔뻔한 거짓말. 그 말에 채팅창은 순식간에 폭발한다.

[시청자 채팅: 와, 전상준 완전 쓰레기였네]

[시청자 채팅: 통수 제대로 쳤네 ㄷㄷ]

[시청자 채팅: 진보의 탈을 쓴 사기꾼!]

[시청자 채팅: 더스피릿 응원합니다! 계인구 대표님 화이팅!]

전상준, 쏟아지는 무분별한 비난의 화살들을 보며 숨이 가빠지기 시작한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눈앞이 흐려진다. 공황 발작이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의 약병을 더듬는다.

약을 몇 알 입안에 털어 넣고, 물도 없이 삼키려 애쓴다.

컥컥거리며 기침하는 그의 모습이 처절하다.

숨을 몰아쉬는 그의 눈에, 창밖으로 보이는 낡은 건물의 옥상이 들어온다.

모든 것을 끝내고 싶은, 깊고 어두운 유혹.

그의 눈동자가 위태롭게 흔들린다.

(FADE OUT)

# S#37. 대통령 관저, 회의실 (밤)

**황덕한**이 막 떠나간 회의실. 무거운 침묵이 흐른다.

**김강호 대통령**은 굳은 얼굴로 테이블 위의 빈 술잔만 만지작거리고 있다.

그의 얼굴에 복잡한 심경이 스친다.

그때, 회의실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화려한 실크 가운 차림의 **윤세은**이 스마트폰과 테블릿PC를 들고 들어온다. 스마트폰만 테이블 위에 올려 놓고, 그녀는 김강호의 뒤로 다가가, 그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는다.

윤세은

(귓가에 속삭이듯)

오빠는 아직도 황덕한을 믿어?

김강호

(윤세은 쪽으로 얼굴을 휙 돌린다)

데리고 심부름이나 시키는 꼬맹이를 믿고 말고가 어딨어? 뭐 시키면 그래도 알아서 하니까 옆에

두는거지...

윤세은, 테블릿PC를 김강호에게 보여준다.

[테블릿 PC 화면] 황덕한 "마약사범 많이 잡고 '악'소리 나게 강하게 처벌할 것" 이라는 제목의 기사 ‘‘2023년 4월21일 국회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당정협회의’ 현수막을 배경으로 발언하는 황덕한의 사진

[기사 내용] 황 장관은 "지난 정부하에서 마약 수사를 주도해온 검찰의 손발을 잘랐다. 그 결과 마약을 거래, 유통하고 소비하는 데 있어서 위험비용이 대단히 낮아졌다"면서 "마약 유통, 제조, 밀수, 상습적 흡입에 대해 놀랄 만큼 강력 처벌하고 많이 잡아내겠다. ‘악’ 소리 나게 강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윤세은

(큰 소리로 천박하게 웃으며 김강호의 말을 끊는다)

하하하! 시키면 알아서? 황 장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김강호의 무릎에 앉으며)

좀 전에 법사님한테 전화 왔어. 내가 황덕한 사주 좀 봐달랬거든.

윤세은, 테이블 위의 스마트폰을 화면에 최근 통화목록이 보인다.

맨 위에 보살\_N, 그 아래법사\_K와 통화한 기록 클로즈 업.

김강호

(윤세은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뭐래?

윤세은

(몸을 기울여 김강호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 쥐고,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속삭이듯)

쟤, 오빠 등에 칼 꽂을 새끼래... ...머리 검은 짐승, 거두지 말라는 말, 알지?

(김강호의 머리를 자신의 가슴에 파묻히게 팔로 끌어안고, 아주 달콤한, 그래서 더 사악한 목소리로)

근데 오빠, 머리 빠진 짐승은 더 거두면 안돼. 관상은 과학이거든!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그녀의 입가에는 악의로 가득 찬, 하지만 성형으로 인해 부자연스러운 미소가 걸려있다.

[플래시백] 김강호와 황덕한의 대화를 도청하는 윤세은의 모습

황덕한(V.O): 여사님 관련 리스크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김강호, 윤세은의 가슴에 파묻힌 채 고개를 끄덕인다. 그의 눈빛이 의심으로 흔들리기 시작한다.

윤세은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으며 김강호의 머리를 더 바짝 자신의 가슴에 밀착시킨다.

김강호

(갑자기 윤세은의 얼굴을 홱 끌어와 입을 마주치고는 그녀를 번쩍 안아 들어올리려 자세를 취하며)

침대로 가자... 으짜!

(윤세은을 안은 채 일어서려다 취기와 다리 부실로 도로 털썩 주저 앉으며 윤세은을 놓친다.)

윤세은

(패대기 쳐지듯 굴러 떨어지고는 신경질적으로 김강호를 확 째려보며 짜증과 화가 섞인 목소리로)

아!... 아이, 씨발 진짜!

(FADE OUT)

## 제1부 대본 (엔딩 시퀀스)

# S#38.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낮)

수많은 여행객들로 붐비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긴 해외 연수를 마친 듯, 깔끔한 정장 차림의 \*\*최하나(40대 초반, 신임 수사과장)\*\*이 피곤한 기색으로 걸어 나온다.

그녀가 막 세관 검색대로 향하려는 순간, 그녀의 예리한 시선이 한쪽 구석의 풍경에 꽂힌다.

척 보기에도 값비싼 명품으로 치장한 젊은 남자, \*\*주성하(20대)\*\*가 막 입국장을 통과하고 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이 이상하다. 그는 일반 여행객들이 이용하는 검색대를 거치지 않는다.

세관 직원 한 명이 마치 VIP를 모시듯 공손하게 그에게 다가가, 상주 직원들만 이용하는 전용 통로 쪽으로 안내한다. 주성하는 그 모든 것이 당연하다는 듯, 거만한 표정으로 유유히 걸어 나간다.

최하나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진다. 그녀는 비행기 안에서 젊은 여성 승객들이 주성하를 보고 호들갑을 떨며 나누던 대화를 떠올린다.

여성 승객 1 (V.O. over flashback)

(친구를 툭툭치며)

어머, 쟤 주성하 아니야? 성대 그룹 손자!

여성 승객 2(V.O. over flashback)

홀리몰리 과카몰리! 실물 갓벽하네. 약에 쩔어 산다더니, 헛소문인가?

최하나는 의아한 표정으로, 상주 직원 통로로 사라지는 주성하의 뒷모습을 잠시 응시한다.

그녀의 '형사적 감각'이 미세한 위화감을 감지한다.

### ****# S#39.**** 영등포의 한 허름한 모텔 방 (밤)

허름하고 좁은 방. 마약에 절어 동공이 풀린 \*\*리화(20대)\*\*가 공포에 떨며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다.

리화

(조선족 억양으로, 떨리는 목소리)

...오빠, 나...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 이거 사람 사는 거 아니야...

전화 너머로 남자의 거친 욕설이 들려온다. 리화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고, 주머니에서 구겨진 메모지 하나를 꺼낸다.

메모지에는 \*\*[영등포서 형사1과장 박태수]\*\*라는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다.

그녀는 마지막 동아줄이라도 잡듯 그 메모지를 꽉 쥔다.

(1부 끝)

## [Cookie Scene]

한정섭

뉴스에서 맨날 떠들지, 마약이 피자 한 판 값 밖에 안된다고. 싸니까 재미로 해보라는 거야, 뭐야?

그럼 마약 값이 왜 그렇게 싸졌겠어?

박순애

왜 자꾸 퀴즈를 내고 그래? 물어보지 말구 그냥 말해~

한정섭

공급이 많아지니까 싸질 수 밖에! 팔 물건이 많아지면 가격이 내려가는 건 말밥이잖아.

한서우

말밥? 말밥이 뭐야?

박순애

얘는~ 말이 잘 먹는 게 뭐야?

한서우

진짜 부부는 닮는구나? 아빠한테 퀴즈 내지 말래면서 엄마는 왜 퀴즈 내는데?

박순애

그르네? ㅎㅎㅎㅎ 쏘리! 말이 제일 잘 먹는 거, 당근!

한서우

아! 진짜~ 개빡침!

박순애

개 뭐? 얘가~

한정섭

마약이 시장에 쫙 풀리면, 물건 많고, 가격 싸고, 주위에서 쉽게 구해. 그러니까 지금

애고 어른이고 할 거 없이 마약을 하게 된 거야.

한서우

근데, 마약팔고 막 그런 무서운 놈들이 왜 우리 나라까지 와서 굳이, 싸게, 마약을 팔아?

한정섭

왜겠니? 왜겠어?

박순애

쓰읍~ 퀴즈 내지 말고 그냥 말하랬지~

한정섭

재미든, 호기심이든, 휩쓸려서든, 일단 마약에 손대는 순간, 바로 중독이야. 중독되면 마약을 계속

살 거구, 가격이 아무리 비싸져도 계속 살 수밖에 없구, 심지어 점점 더 많이 사야 돼. 왜 싸게 파는지

감이 와?

한서우

아빠~ 엄마가 퀴즈 내지 말래잖아~

한정섭

마약을 사업으로 한다 치면 이게 기가 막히는 비즈니스 모델이그든!

내가 장사꾼인데 손님은 계속 늘어나고, 이 손님들이 내가 아무리 값을 비싸게 받아도 내가 파는

물건을 점점 더 많이 산대!

이런 노나는 장사를 너 같으면 하겠냐? 안 하겠냐?

한서우

완전 개꿀! 그런 장사면 개이득인데 당연히 해야지~

한정섭

그런데, 네가 파는 그 물건이 남의 인생을 망쳐 놓는대. 그러면, 하겠냐? 안 하겠냐?

한서우

무뇌야? 그건 안 하지. 돈 좀 벌겠다고 남의 인생을 망쳐? 극혐!!

한정섭

그게 정상이지? 그치? 그런데 딸! 세상에는 남의 인생이야 망치든지 말든지 돈 버는 데만 눈이 먼

인간들이 생각보다 많아. 근데 그런 놈들은 놔두고, 마약 하는 애들만 주구장창 잡아 들여요.

그러면서 마약과의 전쟁은 무슨, 예라이 뽕이다! 쯧쯧쯧!!

가만 보면, 저, 저, 저러는 게 꼭 누구 마약 사업 도와줄라 그러는 거 같다니까?

한정섭의 냉소적인 말에 분위기가 싸늘해진다.